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앙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89호

Tuesday, August 20, 2024 A

“아프간에 남기고 온 70억 달러 미군 장비는?” ‘바이든 외교참사’ 대선 이슈 부상하나

조 바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며 남긴 70억 달러어치 군사장비가 탈레반 정권의 ‘수출 효자 품목’으로 거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물론 미국 현대사에서 손꼽히는 ‘국방 외교 참사’로 거론되는 ‘아프간 철수’가 미국 대선의 주요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는 지난 14일 수도 카불 북부 바그람에서 재집권 및 미군 철수 3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군사 열병식을 거행하며 세를 과시했다. 열병식에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황급히 철수하며 남기고 간 헬리콥터, 장갑차, 탱크 등 각종 군사 장비들이 대거 선보여져 관심을 모았다.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버려진 무기들을 탈레반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괴했다고 알렸으나, 무기들은 대부분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 정부는 이 무기들을 재사용하거나 일부를 무기시장에 내놓아 미국과 대립관



지난 14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탈레반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정권의 열병식이 진행되고 있다.

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동부 일대 무기 암시장에서 탈레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밀수 조사를 통해 세계 각지의 테러 조직에 미국산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기 암시장에서는 소총, 권총, 로켓, 폭탄, 탄약을 비롯해 야간 투시경과 같

은 군사 장비도 판매되고 있다. 연방의 회가 2002년 설립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특별 감찰 기구(SIGAR)’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총 186억달러의 무기 지원을 했고 2021년 철수 당시 71억2000만달러 가치의 무기와 장비들을 두고 온 것으로 추정된다.

박세용 기자

» 6면 ‘외교참사’로 이어집니다

한인 또 ‘무차별 폭행’ 사망

한인 남성이 또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에 따른 뇌사로 숨진 한준희(19)씨에 이어 LA지역에서만 최근 한 달 사이 폭행에 의한 한인 사망 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한 셈이다.

LA카운티검시국과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윤종환(44)씨가 잉글우드 인근 한 공원 벤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시국은 윤씨가 타인에 의한 폭행 등으로 숨졌으며, 직접적 사인은 ‘심각한 두부 외상(blunt head trauma)’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숨지기 전날 주말을 맞아 사우스LA지역 한 공원을 찾았다가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뒤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어머니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담당 형사 말로는 지난 4일 아들은 잉글우드 인근의 한 공원을 찾았고 낮선 무리 3~4명을 마

주쳤다고 한다”면서 “이들 중 한 명이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전했다.

윤씨의 어머니는 이어 “당시 현장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카메라 영상을 보니 아들은 얼굴이 잔뜩 부은 상태로 쓰러졌다”며 “한참을 지나 정신을 차린 아들은 일어나 벤치에 앉았고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물을 주면서 괜찮냐고 묻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들은 그대로 벤치에 앉은 채 있었고 다음 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윤씨를 폭행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주민들의 제보(213-458-2647)도 받고 있다. 윤씨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소식 직후 텍사스에서 LA를 찾았다. 경찰 수사에 협조한 뒤 18일 델러스 인근 소도시 롱뷰 지역의 자택으로 귀가한 상태다.

김형재·김경준 기자

하원 탄핵조사 보고서 “바이든, 가족 위해 권한 남용”

미국 공화당 주도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해온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보고서를 19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그러나 이른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거의 1년간 진행된 공화당의 탄핵 추진 공세는 ‘잣단 속 태풍’으로 그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원의 감독위원회, 법제사법위원

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291쪽 분량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사법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차남 헨터 등의 의혹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공직을 돈벌이로 삼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압도적 증거가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때 가족들의 해외 사업

파트너와 저녁 식사에 참석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의 의혹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명백한 권한 남용에 대한 헌법적 구제책은 하원의 탄핵과 상원의 해임”이라고 밝혔다.

» 6면 ‘바이든’으로 이어집니다



미주중앙일보 창간 50주년 기념 배너. 올해로 창간 반세기를 맞는 미주중앙일보 사옥에 대형 기념 배너가 걸려 있다. 중앙일보는 창간 50주년을 맞아 독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간 기념일(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경품 대잔치에서는 추첨을 통해 한국 양복 항공권, 대형 TV, 안마 의자 등을 제공한다. 10월에는 ‘팬텀싱어’ 우승팀인 라포엠의 LA콘서트가 펼쳐진다. 김상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입
순금 아가 플랜지매핑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CarePeople HomeHealth, Inc. Korean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케어피플 홈헬스
버지니아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메릴랜드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9/9-9/13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 국론분열 선동 막아야”

을지 국무회의서 북한 위협 강조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듯이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정규전·비정규전·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주민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허위 정

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 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밤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아이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며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8·15 독트린은 새로운 게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적 통일 추진을 규정)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걸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선동하는 통일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군사적 침략을 통한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식사비 27일부터 5만원 =이날 국무회의는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하진·박태인 기자

실용 박찬대·김민석·이한주, 탕평 조승래... ‘신명계’ 뜬다

(新)

김윤덕·이해식 등 실무형 중용
이견 빚어온 진성준 유임 논쟁

두 번째 당대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기 지도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당직 인선의 키포 인트는 친명의 확장이다. 이미 당에선 ‘신(新)명계가 뜬다’는 얘기도 나온다.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한 4선의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이다. 당초 비주류로 분류됐던 김 의원은 비(非)이재명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3월 이뤄진 1기 지도부 당직 개편 때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이후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 등 실용 정책을 주도해 이 대표와 거리를 좁혔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을 맡아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 설계를 주도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2기 지도부에서 정책을 주도할 ‘키맨’으로 분류된다. 이 원장은 4월 당직 임명 뒤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부담·중복지 실현 ▷중부세·상속세 완화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수용 등 중도적 입장을 밝혀 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명실상부한 친명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동시에 민생 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당에선 “과거 이 대표의 대선 준비그룹이던 ‘7인회’ 대신 새롭게 부상한 이

이재명 2기 주도권 신(新)명계		
박찬대 (3선·인천 연수구) 원내대표 인하대 경영학과 졸업 20·21·22대 국회의원 이재명 1기 최고위원 역임	김민석 (4선·서울 영등포을) 최고위원(1위)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15·16·21·22대 국회의원 이재명 1기 정책위의장 역임	김윤덕 (3선·전북 전주갑) 사무총장 전북대 회계학과 졸업 19·21·22대 국회의원 이재명 1기 조직부총장 역임
진성준 (3선·서울 강서을) 정책위의장 전북대 법학과 졸업 19·21·22대 국회의원	조승래 (3선·대전 유성갑) 수석대변인 충남대 사회학과 졸업 20·21·22대 국회의원	이해식 (재선·서울 강동을) 비서실장 21·22대 국회의원 사감대 철학과 졸업 이재명 1기 사무부총장·수석대변인 역임
천준호 (재선·서울 강북갑) 전략기획위원 경희대 사학과 졸업 21·22대 국회의원 이재명 1기 비서실장 역임	김우영 (초선·서울 은평을) 정무조정실장 성균관대 국문과 졸업 22대 국회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서울대 생물학과 졸업 이재명 2기 연구원장 역임

들이 이 대표의 집권플랜인 실용노선을 주도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1기가 이재명이 당에 뿌리내리는 과정이었다면, 2기에선 구체적으로 이재명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3년 뒤 다가온 대선을 목표로 한 만큼 1기 지도부보다 급을 높여 전진 배치된 실무형 인사들도 눈에 띈다. 이 대표는 19일 사무총장에 3선의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을 유임시켰다. 김 의원은 1기 지도부에서 조직부총장을 지내면서 22대 총선 경선 과정을 관리했던 인물로, 이 대표의 신뢰가 두텁다고 한다.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재선인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이 임명됐다. 이 의원은 1기 지도부에서 사무부총장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재선의 천준호(서울 강북갑) 의원 역시 1기 지도부에서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우영(서울 은평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유임될 가능성

이 높다.

일부 ‘탕평 인사’도 눈에 띈다. 이날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3선의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편으로, 본인도 “누가 봐도 ‘친명’으로 분류되진 않았던 저를 수석대변인에 임명한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놓고 이 대표와 이견을 빚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도 의외라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진 의장은 금투세에 대해 “2025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강경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2기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이고, 대통령실이 배려할 것은 일본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성지원·강보현 기

“한동훈 리더십 6개월이 좌우 지면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국민의힘 원로들, 한 대표에 조언
“1주에 한 번 대통령과 적극 소통을”

국민의힘 원로들이 19일 한동훈 대표를 만나 당정 관계 개선을 주문하며 “지면서 이기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했다.

이날 한 대표는 18명의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 오찬을 함께 했다. 유준상 상임고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6개월이 ‘변화’를 강조한 한동훈 리더십 승패 결정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메사 이야기 하지 말고 지면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원로는 또 “당정은 상호 충돌이 아닌 보완 관계가 돼야 한다”며 “일 주일에 한 번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을 감동시킬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제로 콜라” 모임을 이어가며 중진 의원과 스킨십을 늘리고 많이 학습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특히 당 원로들은 한 대표가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에 대해 박수를 치며 힘을 실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 구별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도 받으며 당원을 관리하는 정당 지역 조직이다. 1962년 정당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여파로 2004년 폐지됐다. 한 대표는 “20년 전

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한다르크(한동훈+잔다르크)가 돼 달라”며 “당이 외연을 확장하고, 젊은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과감히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해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차 추천 방식도 안 된다는 취지다. 원로들은 특검법 자체를 받는 순간 야당이 노리는 대통령 탄핵 프레임에 말려들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한 대표는 즉답하지 않고 경청했다고 한다. 정책 주문도 이어졌다. 복수의 참석자는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는데 있어 주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은 소홀해지지 않도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대표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과 ‘AI(인공지능) 법’ ‘반도체법’의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대표는 오찬을 마친 뒤 “당의 전통과 가치를 잘 설명해 주셨고, 제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뭔지 말씀해 주셨다”면서 “꼭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워싱턴 날씨 (°F)

21일(수)	78~57	24일(토)	87~66
22일(목)	81~60	25일(일)	90~69
23일(금)	85~63	26일(월)	92~73

8월 20일(화) 76~5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유,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자세한 내용은 '연순향' 리모 703-489-6926

SOLD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문단은 백화점, 커뮤니티 활력소로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MACY)'가 오는 2027년 초까지 150개 이상의 백화점을 폐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매장 470여개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은 커뮤니티의 경우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형 백화점이 폐점하며 지역에 꼭 필요한 아파트 및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도시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돼 관심을 모은다.

메이시는 10년전까지만 해도 773개의 매장을 운영해왔다. 백화점 측은 어떤 매장을 닫을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워싱턴 지역에서도 최소 3곳의 매장이 폐점 리스트에 속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국에서는 폐점하는 백화점 면적은 전체의 25%를 차지하지만 매출 비중은 10% 미만이라고 전했다.

메이시는 폐점 후에도 여전히 350개 이상의 매장을 유지하고 브루밍데일이나 블룸머큐리와 같은 고급 브랜드 백화점을 추가할 계획이다. 메이시 백화점은 쇼핑물마다 20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앵커스토어 역할을 해왔으나 온라인 쇼핑물과의 경

10년전에 비해 대형 쇼핑몰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문단은 곳에 몰류센터,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들어서



쟁에서 밀리면서 매장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메이시의 폐점이 지역경제에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의 크리스 워머 디렉터는 "덩치만 크게 자리잡을 뿐 지역사회총생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 메이시가 사라지고 새로운 필요에 의해 들어서는 새로운 시설이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인구가 줄어든 쇼핑몰 업체는 차라리 메이시가 조기에 철수하고 다른 대형매장 입점을 피하기도 한다. 개

발업자들은 메이시 백화점이 문단은 곳에 아파트, 노인요양시설, 병원, 아이스하키 링크를 건설하거나 심지어 아마존 몰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이시보다는 그로서리 마트가 낫다는 주장도 나올 정도다.

메이시 외에도 시어스, 로드 앤 테일러, JC페니 등도 매장수를 크게 줄이고 있다. 쇼핑몰은 실내면적 대비 매출액을 기준으로 클래스A부터 클래스D로 나뉘는데, 클래스A와 클래스B는 2016년 클래스A가 352개에서 현재 307개로 줄었다.

김옥재 기자

공화당 바바라 컴스탁 전 의원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지지" 논란

한인사회와도 인연이 깊은 바바라 컴스탁(사진) 전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카말라 해리스를 공식 지지해 논란이다.



컴스탁 전 의원은 1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1월 6일 연방의회 난입사태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동안 자신의 패배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면서 "이것이 오는 11월 대선에 내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로써 컴스탁은 버지니아 공화당 출신 의원 중 해리스를 공식 지지하는 두 번째 인사로 기록됐다. 이달 초, 공화당 소속 덴버 리글먼 전 하원의원 역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표명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바바라 컴스탁 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버지니아주 제 10선거구를 대표하는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했다. 민주당 성향의 북버

지니아 지역을 기반으로 둔 까닭에 책임기간 내내 컴스탁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대립각을 이뤘다. 특히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을 더듬는 장면이 담긴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며 논란을 야기했을 때, '경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컴스탁 전 의원은 2018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제니퍼 웨스턴 후보에게 패했다. 당시에도 컴스탁은 자신의 패배를 "트럼프 탓"으로 돌려 공화당원들에게 비난받았다.

박세용 기자

배심원 소환장 사기로 수천달러 잃어

발신자 아이디어 '쉐리프국'

최근 워싱턴 지역에 또다시 배심원 소환장 사기 사건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퇴역군인 출신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신의 아버지가 최근 배심원 소환장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 남성의 연로한 부모는 몽고메리 카운티 쉐리프국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배심원 소환장에 붙여놓은 이유로 체포될 수 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이메일을 통해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PDF 파일을 전송했다. 사기 일당은 8만8천달러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된다고 협박했다. 부모는 거액의 돈을 당장 마련할 수 없다

고 하자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내려가 결국 5800달러로 합의했다.

사기 일당은 이 돈을 비트코인을 통해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만들고 이 지갑에 비트코인을 구매해 담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 남성의 어머니는 IT에 비교적 밝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다.

사기 일당은 자신들이 실제 쉐리프국 요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석금 재판 출두 일자를 통보했는데, 이 날짜에 출석했을 때야 비로소 사기에 걸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국에서는 절대로 전화를 통해 배심원 소환장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기일당들이 경찰국과 쉐리프국 등의 발신자 아이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옥재 기자

21일까지 '수퍼블루문' 현상

다음 수퍼블루문 13년 기다려야

연방항공우주국(NASA)가 오는 21일(수)까지 수퍼블루문 관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보름달은 '슈퍼문(Supermoon)'과 '블루문(Blue Moon)'에 모두 해당해 수퍼블루문으로 불린다.

슈퍼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NASA의 정의에 의하면,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지점에 위치할 때 뜨는 보름달이며,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원지점 보름달(미니문)보다 크기는 14%

더 크고 밝기는 30% 밝게 관측된다.

블루문은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로, 파란색이라서 블루문이 아니다. 달은 약 29.53일을 주기로 1회전하기 때문에 2년 8개월마다 보름달이 한 달에 2번 뜨게 된다. 이 경우 한 계절에 보름달이 4번 뜨게 되는데, 3번째 뜨는 보름달이 블루문이 된다. 이러한 특성 탓에 전체 보름달의 약 25%가 슈퍼문이지만, 보름달 중 블루문은 3%에 불과하다.

NASA는 두 가지 정의에 의하더라도 달의 색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에 보름달이 파란색으로 보이지는 않



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21일까지 태양계의 토성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태양과 지구, 토성이 나란히 놓이게 되는데, 일반 쌍안경으로도 토성의 띠 관측이 가능하다. 당국에서는 다음번 수퍼블루문이 13년 후에 나타난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 - 오미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1석 5조 통합보험

5 in 1

-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 Life Insurance 생명보험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N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Financial Group** **CS** **ISW**
Aetna **NATIONAL WESTERN LIFE**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융자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노래방서 보호비 갈취 한인 갱단원 22년 6개월형

협박 등 57건 중범 혐의 기소
총 쏘거나 야구 배트 구타도



평결을 받았었다.

LA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년간 보호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한인 갱단원 조대근(39·일명 DK·사진)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 가수 중부 지법(담당 판사 페르난도 안레 로차)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씨가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판사는 조씨에게 실형과 함께 배상금(24만167달러), 연방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징수하는 특별 부과금(5700달러) 등 24만5867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조씨는 협박, 공갈 등에 의한 영업 방해, 차량 탈취 등 무려 57건의 중범 죄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 3월 배심원 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폭력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갈취범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연방법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 국토안보조사부(HSI), LA경찰국(LAPD) 등은 잠복까지 하며 이번 사건을 1년간 수사한 끝에 조씨를 체포했다.

HSI LA지부 에디 왕 특별 수사관은 “LA에서 폭력 범죄를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이 이번 판결의 결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HSI는 앞으로도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법집행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18~2023년 3월까지 LA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는 물론이고 여성 접대부인 도우미에게 매달 100~1000달러가량의 보호비를 요구했다. 조씨는 보호비 상납을 거부한 업주나 도우미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야구 배트로 구타하거나 심지어 총까지 쏘는 등 폭력을 일삼아 왔다.

한인타운 내 노래방은 20여개로 추산된다. 그동안 조씨가 업주들에게 갈취한 금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노래방 업주들의 설명이다. 연방검찰 시어런 맥보이 공보관은 “한 피해자는 조씨에게 더 많은 폭행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아예 노래방을 닫고 가주를 떠나버렸다”며 “조씨는 체포 당시 안전장치가 풀려있는 총기와 칼, 야구 배트 등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검찰, HSI, LAPD 등은 조씨를 체포하기 위해 중무장 기동대인 연방 특수대응팀(SRT)까지 동원했다. 고소장을 직접 작성했던 건 HSI의 한인 마이클 최 특별 수사관이였다. 장열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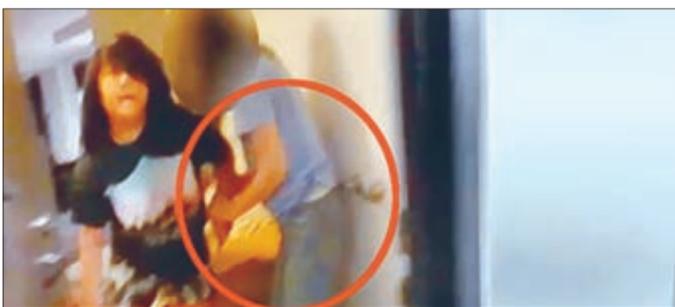
한인업소 입주 쇼핑몰 총격 발생 1명 사망

한인업소가 위치한 글렌데일 쇼핑몰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글렌데일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8시45분쯤 노스 퍼시픽 애비뉴 800번지 소재 한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도주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뒤였다. KTLA에 따르면 피해자는 50대 아르메니아인으로 두 어린 자녀의 아버지로 밝혀졌다. 그는 지역에서 유명한 음악 프로모터였다.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갖고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피격 현장 바디캠 공개...가족 주장과 차이

〈뉴저지판 '양용 사건'〉

총격장면, 모친과 대화 등 담겨
흥기 소지·경관 위협 장면 달라



뉴저지주 검찰이 공개한 바디캠 영상에서 숨진 빅토리아 이씨의 모친(오른쪽)이 이씨의 왼손을 붙들고 설득하고 있다.이씨의 왼손에는 흥기가, 오른손엔 물통이 들려져있다. [뉴저지주 검찰 제공]

지난달 28일 발생한 뉴저지주 포트리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25)씨 사망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바디캠이 공개됐다. 16일 본지가 입수한 바디캠은 이날 오전 유족과 일부 소수단체에 대한 시연을 거쳐 공개됐다. 주 검찰은 대중 공개를 앞당기고 싶어했다는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자신이 있으니 빨리 공개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경관의 바디캠 영상 4개와 테이저건 영상 1개, 911 신고 녹취록 2건이다. 당초 주 검찰이 밝힌대로 이씨의 오빠 크리스는 911로 1차 전화를 통해 동생 빅토리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병원 이송을 원한다고 설명한다. 2차 전화에선 경관이 오길 원하지 않으므로 취소를 요구하지만 이미 출동했다는 답을 받는다.

모친의 지침에 따라, 빅토리아가 흥기를 들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대원의 흥기 관련 상세 질문에 ‘holding’ 형태로 들고 있으며 또한 ‘fold(접이식)’ 형태의 칼이라고 설명한다. 대원은 그가 협박을 했는지 2회에 걸쳐 묻고, 흥기 소지자이기 때문에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이어 빅토리아가 침실에 있음을 확인했다. 유족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은 빅토리아의 흥기 소지 및 경관 위협 여부다. 영상 속 1차 대치 상황의 빅토리아는 흥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경관에게 오지 말라고 욕설 섞인 발언을 한다. 당초 유족 측 설명과 달리 문이 열리고 등장한 크리스가 먼저 경관을 맞는다. 이어 크리스에게 경관이 정신질환자 당사자인지의 여부를 묻고, 동생이라는 걸 확인한다. 경관은 다치게 하지 않겠다며 모녀

를 마주하고, 계속 설득하지만 빅토리아는 발언을 멈추지 않는다. 추가 지원 인력이 도착하고, 대치가 이어지자 경관들은 크리스에게 뒤로 빠져 있으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경관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닫았지만, 문을 두고 소란은 계속됐다. 빅토리아는 경관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뒤의 경관이 “쏘려는 게 아니라 얘기하려는 거다”라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경관은 “문을 부수겠다”고 경고한 후 폼으로 문을 열었다. “물러서라” “무기를 내려놓아라” “문을 부순다” “무기를 내려놓아라”라는 경고가 반복해 이어졌다.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에 따르면 빅토리아는 목을 찌르겠다(Go ahead, I'll stab you in the f-king neck)고 위협도 했다. 이에 경관들은 ‘살상(lethal)’과 ‘비살상(less lethal)’ 임무를 구분, 대응에 나섰다. 모자이크 처리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원본을 본 조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왼손엔 흥기를, 오른손엔 새 물통을 든 빅토리아가 문이 열린 후 경관을 마주했다. 모친이 흥기를 든 빅토리아의 팔을 잡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날 검찰은 흥기를 든 빅토리아가 복도로 다가왔고, 이에 경관이 대응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바디캠에선 이후 경관의 발포했고 빅토리아가 쓰러졌으며 경관의 욕설이 이어진다. 모친은 “무슨 짓이냐” “이럴 수가”를 반복하고, 경관은 쓰러진 빅토리아를 끌어당겨 “괜찮냐”고 묻은 후 총상을 어디에 입었는지 확인한다. 빅토리아는 욕설을 하고, 모친은 “괜찮을 거야”라고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영상은 경관이 집 안에서 키친타월을 뜯어 오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날 유족 측에선 조석진 변호사, 검찰 출신 형사 변호사, FBI 출신 전문가가 동행했다. 조 변호사는 테이저건 영상의 질이 좋지 않다고 기술적으로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다른 두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모친에게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계 경관으로 추정되는 현장의 한 경관이 ‘lethal’을 말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신차 가격 10개월 연속 하락

평균 거래 가격 4만8401불
역대 최고치서 1528불 내려

갈수록 신차 가격은 낮아지고 인센티브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정보업체 콧스오토모티브는 캘리블루북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신차 평균거래가격(ATP)이 4만8401달러로 6월 4만8424달러보다 23달러(0.1%), 지난해 동기보다는 106달러(0.2%) 각각 내리며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의 역대 최고 4만9929달러보다 1528달러, 3.1% 하락한 수치로 가격 내림세는 지난달 인벤토리가 291만대로 전년 동월보다 52%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수의 인기 모델들이 평균 ATP 아래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판매된 4대 중 1대를 차지한 콤팩트 및 소형 SUV 모델의 ATP는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인센티브 덕분에 각각 3만6621달러, 2만9827달러였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24.3%, 38.4% 낮게 거래



세리토스 오토몰의 한 자동차 딜러에서 신차 쇼핑에 나선 소비자들.

된 것이다.

평균 ATP가 여전히 높은 것은 고가의 픽업트럭 판매량이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난달 평균 ATP는 6만5713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35.8%가 높았다.

ATP의 6.4%를 기록했던 신차 인센티브도 지난달 7% 또는 3383달러까지 확대돼 최근 3년 사이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ATP의 4.4% 수준이었던 지난해 7월보다 59.1%가 증가한 것이다.

브랜드 가운데 인센티브가 가장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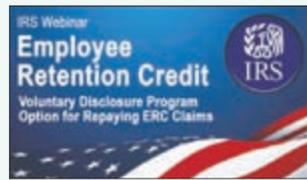
았던 곳은 인피니티, 폭스웨건, 아우디, 닛산 등이었으며 크라이슬러, 닷지, 지프, 램 등은 인벤토리가 업계 평균을 상회했음에도 인센티브는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평균 ATP가 5만6520달러로 6월에 비해 소폭 오른 전기차(EV)의 인센티브도 ATP의 12%를 넘어서며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업계 평균보다 73%가 높은 것으로 지난해 동월 업계 평균인 6%의 두배까지 확대됐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RC 자진 상환 프로그램 11월22일까지 한시 운영

누적 이자와 벌금 면제
부정 청구 단속은 강화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 크레딧(ERC)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IRS는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은 올 11월 22일까지 자발적 상환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ERC 수급 금액의 85%를 정부에 다시 반납하면 이자와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을 약정하고 기간 내에 모두 갚지 못하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2600명의 업주가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10억9000만 달러를 반납했다.

대니 워렐 IRS 커미셔너는 “많은 부정청구가 잘못된 마케팅에 속아서 진행된 것이기에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은 중요하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S는 프로그램과 별개로 ERC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감사를 통해 약 3

만 건의 부정 청구를 적발하고 지급 결정 철회를 알리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이 서한을 수령한 납세자들은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IRS는 지금까지 1만2000건에 달하는 부당 청구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으며 5억77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됐던 자진 철회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ERC를 잘못 신청한 납세자 중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나 ERC는 받았지만, 현금화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바로 자진 철회 프로그램이다.

자진 철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허위 청구에 따른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철회된 청구는 7300건에 달하며 총액은 6억7700만 달러를 넘는다.

조원희 기자

Z세대 여성들 “주식 투자 많이 한다”

18~26세 71%가 참여 중

Z세대 여성들이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지난해 피델리티가 시행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Z세대(18~26세) 여성들이 앞선 세대들보다 주식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Z세대 여성 비율은 71%로, 64%의 밀레니얼(28~43세)이나 57%의 베이비부머(60세~69세)보다 높았다.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피델리티 로스 IRA 계좌를 연 여성 고객 역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 늘었

다.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BI는 이같이 높아진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 콘텐츠가 확대되고 개선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여성을 위한 금융 교육 콘텐츠의 대표적인 예가 2022년에 나온 금융 서적 ‘파이낸셜 페미니스트’다. 매체는 이 책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여성을 겨냥해 소득 관리, 부채 상환 등 투자의 기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평했다. 개인재정 관련 조언과 팁 등을 혼합해 금융 교육을 재치있게 풀어간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과거 여성 개인재정 교육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전 여성 대

상 교육은 커피나 매니큐어 등 ‘사소한’ 품목 쇼핑이나 절약 방법 등 가정경제 운영에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여성을 겨냥한 부동산 투자, 연봉 협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와 플랫폼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 세퍼드 워싱턴 주립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금융 상품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은 이전 세대가 성취했던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될 수 없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고 설명했다.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던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다.

그는 이어 “소득이 높지 않은데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면, 저축자금을 활용한 투자에 매진해 부를 축적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재선 기자

현대로템, 보스턴 2층 객차 추가 수주

세 번째 -1억7597만불 규모



현대로템이 매사추세츠주 교통공사(MBTA)와 보스턴 2층 객차 추가 공급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현대로템이 MBTA에 2층 객차를 공급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로 계약 규모는 1억7597만 달러다.

보스턴 2층 객차 사업은 MBTA가 현지에서 늘어나는 통근 승객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노후화된 객차를 교체하는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MBTA 2층 객차 사업을 처음 수주한 이후 2019

년 같은 사업에서 추가 물량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현지 시행성과 협업해 온 그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 시장 철도 차량 수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는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휴전 중재안 지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가자지구 휴전·인질석방 협상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맞이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3시간에 걸친 회담 뒤 낸 성명에서 “회담은 긍정적이었다. 좋은 분위기였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의 인질 석방 제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견상 미국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이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완전 소탕을 휴전의 조건으로 보는 만큼 미국과 공조하겠다는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 15~16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들은 휴전·인질석방 중재안을 이스라엘과 하마스에게 전달했다.

당시 협상에 불참한 하마스는 지난 18일 “이것은 해소되지 않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해 (협상

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중재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날 블링컨 장관을 만난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휴전 협상 교착의 책임을 하마스 측에 돌리면서도 “중재국들이 이끄는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고 휴전을 이뤄 모두가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위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할 결정적인 순간이자 최선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휴전을 압박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만난 뒤 20일 이집트로 이동한다.

프랑스 대표배우 알랭 드롱 별세

꽃미남 이미지와 싸운 세기의 미남

‘태양은 가득히’ 등 90편 출연 프랑스 누아르 황금기 이끌어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배우’(가디언)이자, ‘프랑스 영화의 위대한 유혹자’(프랑스24), ‘프랑스 영화계의 영원한 스타’(르몽드)가 세상을 떠났다. 프랑스가 낳은 ‘세기의 미남 배우’ 알랭 들롱(사진)이 18일 별세했다. 88세.

사인은 발표되지 않았다.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투병해 온 고인은 “건강이 악화할 경우 안락사해 달라”는 뜻을 2022년 3월 가족을 통해 공표했다. 이후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여자가 다가올 때’(1957)로 스크린 데뷔한 이래 9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영화 ‘태양은 가득히’(1960)에서 신봉상승 욕망에 사로잡힌 가난한 청년 톰 리플리 역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다부진 몸, 차가운 푸른 눈빛으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란 수식어를 얻었지만, 꽃미남 스타에 안주하지 않았다. “나는 스타가 아니라 배우다. 사람들이 내가

아름다운 얼굴의 예쁜 소년일 뿐이란 사실을 잊게 하기 위해 수년간 싸워왔다”고 수차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전 세계 명감독들과 작업하며 숱한 대표작을 낳았다. 이탈리아 거장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태양은 외로워’(1962), 프랑스 명감독 르네 클레망의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1966), 미국 감독 조셉 로지의 ‘고독한 추적’(1976), 프랑스 스릴러 귀제 자크드레이의 ‘불사리노’(1970), 등이다.

프랑스 누아르 전성기의 중심에도 고인이 있었다. 깃을 세운 트렌치코트에 중절모를 눌러 쓴 서늘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필름 누아르 걸작을 배출했다. 특히 장 피에르 멜빌 감독의 ‘한밤의 암살자’(1967), ‘암흑가의 세 사람’(1970) 등은 마틴 스코세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오우삼 등에게 영향을 준 작품으로 꼽힌다.

나원정 기자

러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인근 마을 또 장악”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를 공격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공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잘리즈네(러시아명 아르토포보) 마을과 비엘카 기차역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잘리즈네의 인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전인 2022년 초 기준 약 5천명이었 다면서 이는 최근 몇 주간 러시아군이 장악한 마을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광산이 발달한 잘리즈네는 러시아군이 장악하려고 노력 중인 토레츠크와도 가깝다. 2022년 초 기준 인구 약

3만명인 토레츠크는 오랜 기간 우크라이나군의 요새 역할을 해온 마을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6일부터 러시아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주에서 계속 진격하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꾸준히 주요 마을을 손에 넣고 있다.

특히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토레츠크와 포크로우스크를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병참 거점인 포크로우스크에서 약 15km 거리에 있는 스비리도니우카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하며 러시아의 허를 찔렀으



도네츠크의 러시아군

나 도네츠크 등 러시아가 점령한 자국 전선에서는 병력·탄약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쿠르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 격퇴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쿠르스크 전투가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군이 손실한 병력이 3천 800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쿠르스크주의 9개 접경지에서 12만1천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 1면 ‘바이든’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공직을 이용했거나 차남의 사업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AFP 등 외신은 평가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해 9월부터 당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로 탄핵 조사에 들어갔다.

하원은 같은 해 12월 하원 차원의 결의를 채택해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공화당은 그동안 헨터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기간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

리스마 홀딩스 임원 등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활용해 외국 기업과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탄핵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화당은 국세청(IRS) 내부고발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가 헨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해왔다.

탄핵 조사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이지만, 탄핵 추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는 아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 상원에서 탄핵심판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만약 공화당이 실제 바이든 대통령

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절차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탄핵 조사를 진행한 위원회의 노력만 치하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이 이 보고서를 읽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당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내 지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실패한 쇼”라면서 “거의 2년의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러시아 극동 강진 후 화산 폭발 18일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 뒤 인근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했다. 화산폭발로 약 8km 높이까지 화산재 기둥이 치솟았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화산·지진학 연구소는 “24시간 내에 9.0 규모의 강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연합뉴스]

▶ 1면 ‘외교참사’에서 이어집니다

또한 국방부에 따르면 78대 이상의 항공기, 1만2,000여의 험비 차량, 4만 2,000여대의 군용트럭, 35만 대의 총기류를 포함 대량의 미군 장비가 철군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었다. 로버트 리 매기니스 예비역 중령은 “미군 철수를 위한 마지막 군용기가 카불공항 활주로를 이륙하자마자 중국정부는 아프간에 군관계자들을 파견했다”면서 미국의 값비싼 최첨단 군사무기 및 설비들이 바이든 정부의 갑작스런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적국에 흘러갔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같은 조 바이든 정부의 ‘실책’은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사용할 주요 이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이든 정부의 ‘현직 부통령’이라는 점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집중 부각해, 해리스가 대통령이 재임한다면 강대국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킨 바이든 정부의 ‘실책’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민들에게 각인시킨다는 전략이 진행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박세용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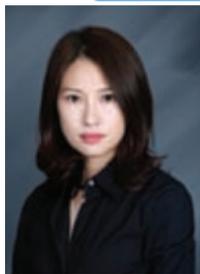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1주년 기념 사은행사

시간이 멈추는 곳, 맛으로 기억되는 순간들

최상급 블랙 앵거스 고기를 사용해 18일간 정성스럽게 숙성된
육즙가득한 고기의 맛을 즐겨보세요.

특별한 날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맛있는 식사를 경험하세요.



KOHO에서 **8월 28일까지**
식사하시는 분들께
Raffle Ticket 1장을 드립니다.

추첨 2024년 8월 28일 (수) 6pm

*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특상 (Grand Prize) 1명 홍진영 VIP 특석 2매와 Backstage Pass

1등 (1st Prize) 5명 홍진영 VIP 특석 or 홍진영 VIP Suite 2매

2등 (2nd Prize) 10명 홍진영 일반석 2매와 \$25 KOHO Gift Card

3등 (3rd Prize) 10명 \$100 KOHO Gift Card

4등 (4th Prize) 20명 \$50 KOHO Gift Card



홍진영
Hong Jin-Young
Concert
8월 31일 (토)

홍진영 콘서트 티켓을
KOHO에서 구입하세요.
15% 할인과 \$25 KOHO
Gift Card를 드립니다.

[티켓판매문의] 443-812-4221



Gift Voucher
20% OFF

Valid through OCT. 31, 2024. Cannot be combined with Casino Comps. Limit one voucher per transaction.



다양한 한식 메뉴와 프라이드 치킨 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43.222.7777 www.kohobbq.com

7002 Arundel Mills Cir., Hanover, MD 21076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경제안보 강화하고 국가경쟁력 키울 '모델-K' 만들자



경제안보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선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든지 파편화되어가는 국제질서 아래에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 기조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일본·중국 역시 경제안보의 장벽을 높이고 있다. 방어망의 형성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경제안보는 그동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공급망 기본법, 자원안보 특별법의 제도를 신속하게 갖추고 위기 감지 및 대응과 중요 품목 비축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들과 양자 기반의 경제안보 협력 체제를 형성했다.

이제 한국은 다음 단계의 경제안보로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 대상 국가에 다가갈 수 있는 열쇠는 공급망과 경제안보에 있다. 주요 경제권의 공동 화두가 된 공급망 안보는 우리의 취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도체 및 배터리, 원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의 투자와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다.

경제안보의 새로운 담론을 찾을 때

경제안보를 능동적으로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등장한다. 하나는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정립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적인 파트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중요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어떤 리그'에 들어가는지의 정체성 문제이다. 이런 차원에서 주요 10개국(G10)에 목표를 맞춘 새로운 국가경쟁력 모델을 경제안보와 연계시켜야 한다.

1996년 한국은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2008년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0년 한국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주요 경제권과 한국 이어 줄 최대 화두는 경제안보와 공급망 높아진 국가위상, G7 정상회의 초청으로 확인... 이제 G10 목표 기업가 정신과 제조업 경쟁력 살린 한국형 '레벨업' 전략 필요
단순 경제논리론 과제 해결 못해, 대립과 냉소주의 넘어서야

서 보다 강화된 글로벌 및 지역적 대표성을 갖게 됐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이미 여러 경제지표에서 10위권의 위상을 확보한 한국은 G7 정상회의에 수차례 초청되며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문화적 소프트파워 역시 한국의 위상을 확연히 바꿔놨다. 한 세대 안에서 거의 10년 주기로 선진국 진입과 지속적인 승격을 만들어 낸 사례는 역사상 유례가 드물다.

하지만 압축적인 성장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산업별 불균형이 심화했다. 반도체 호황 뒤에 사양산업과 자영업의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회경제적 위기가 됐다. 세대 간 갈등 역시 만감하다. 전쟁과 빈곤을 경험한 할아버지 세대와 고속성장 시대를 경험한 부모 세대, 이미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저성장의 뒷에 걸린 'MZ 세대' 자녀들이 한 식탁에 모여 밥을 먹는다. 서로의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 누구는 미국이 중요하다고, 누구는 중국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기업이 양보해야 한다고, 노동조합이 양보해야 한다고 서로 주장한다. 자신의 경험에서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납득이 잘 안 된다.

점점을 상실한 사회에서 한국이 어디로 나아가 할지에 대한 지향점은 명확하지 않다. 인종과 공존이 미흡한 상황에서 산업 간, 세대 간에 불신의 폭이 넓어져 가고, 그 틈을 극단적 도덕주의, 과거로의 회귀, 냉소주의가 빠르게 자

리 잡았다. 실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반실용적인 이념 논쟁이 팽배한 정치는 포퓰리즘에 휩쓸리기 쉬운 구도다. 결정적인 순간에 '팀 코리아'가 위기 상황으로 받을 깊이 담고 있다.

선진국 모방 대신 자체 모델 필요

이제 G10을 바라볼 '모델-K'를 새로 만들 시기가 됐다. 지난 30년 간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의 모델이 과연 있었는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반세계화와 복지 담론 사이에서 고민하며 성장했다. 공통의 화두는 불명확했다. 2024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이제까지 순위 중 가장 높은 20위를 차지했지만, 목표로 하는 G10의 경제위상에 걸맞은 지표까지는 거리가 있다. 선진국 진입의 목표를 넘어서 국제경제의 주도국 역할을 할 레벨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델-K는 국내·국제적으로 접점을 만들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국가경쟁력이라는 화두를 던져야 한다.

과거에는 여러 선진국 모델을 비교하고 모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논의의 큰 방향이었다. 여전히 참조할 유용한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 맞는 기성 모델을 찾기는 어렵다. 경제안보와 국가경쟁력에서는 한국 자체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제국주의를 통해 성장한 국가가 아니고, 구시대의 족쇄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인종과 난민의 문제도 유럽에 비해 통제가 가능하다.

아직 기업가 정신과 제조업 기반의 경쟁력을 보유한 주요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이 잘하는 것, 잘해야 하는 것,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구체화해야 한다.

외국 동향 분석할 전문가 강화해야

모델-K에는 여러 경쟁력 요소들이 접목된다. 분단과 지정학적 갈등 아래에서는 안보 경쟁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핵 억지와 위기관리는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의 근간이다. 여기에 교육과 이민을 포함한 인적 자원 경쟁력, 새로운 에너지 모델을 위한 탄소 경쟁력, 탈규제를 통한 첨단기술 경쟁력이 일차적으로 더해진다.

그러나 공급망과 자원안보 문제는 한국 혼자서는 풀 수 없다. 외교적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경쟁력이 필수적이고, 양자 관계 차원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주의 체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규제와 표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규범경쟁력 역시 중요하다. 국제규범 창출에 직접적인 참여는 경제안보 대응태세를 피해 방지 및 수습이라는 방어적 차원에서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으로 전환한다. 이 부분이 받쳐줘야 '힘을 가진' 경제안보가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한국은 아시아의 허브가 돼야 G10 진입이 가능하다. 미국·중국·일본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입지와 역량을 가진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주변국들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모델-K에서는 중국·일본·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전문가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미국과 유럽의 거시적인 동향을 분석할 전문가 집단도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 매년 땀을 흘려 놓은 입시 체제 아래에서 힘을 잃어가는 외국어 경쟁력도 복원돼야 한다. 한국에서 영어와 중국어·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사용될 때 엄청난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언어는 지정학적 갈등 사이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기본적인면서도 자연스러운 경쟁력이 된다.

'모델-K' 지속적 공론화 과정 있어야

모델-K는 고정된(static) 규율이 아니라 동적(dynamic) 모델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모델-K는 일회적인 구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내적·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공약수를 최대한 만들어 내야 한다.

군사안보도, 경제안보도 '왜' 중요한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방안이 힘을 받는다. 거대 담론만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기업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미시적이고 분자화된 경쟁력 요소를 담아내는 그릇이 모델-K가 돼야 한다. 공론화에는 설득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리한 생각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많은 재원이 여러 부문에 존재한다. 그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원동력이 앞으로 한 세대 안에 또 여러 번의 '퀵텀 점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또 한 번 출렁일 국제경제의 거센 파도에 맞설 '팀 코리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폭넓은 인재 풀을 과감하게 모아 모델-K를 위한 새로운 캠프를 꾸릴 때다. 국가경쟁력 전략수립은 정부 주도로도 할 수 있지만, 뜻을 같이하는 여·야·민간의 3자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성장의 담론을 만들어 내는 작업은 정권 초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성을 느낄 때가 '골든 타임'이다. 화두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은 국정 운영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프렌차이즈 | 비즈니스 매매



주 6일 프렌차이즈
\$320K 인컴 \$1만
페어팩스 버지니아



주 6일 Deli
\$370K 인컴 \$2만
몽고메리 메릴랜드



주 6일 Deli
\$180K 인컴 \$1만
PG 메릴랜드



주 6일 Deli
\$250K 인컴 \$1만



703.395.3123
CoStar GROUP | POWER BROKER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신제품 세종 후코펫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GMP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효과, 면역력증대, 세질개선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진연화,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혈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SEJONG FUCO PET
세종 후코펫
Supplement Powder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703-256-7671

한·이 “민생 답찾자” 일요일 여의도회담

(한동훈·이재명)

만남 제안 하루만에 25일 회담 합의
금투세 폐지·순직해병특검법 등
회담 전 의제선정 줄다리기에 예고
여야 대표의 공식회담은 11년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데 합의했다. 19일 오후 양당은 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친 후 “민생을 위한 대표 회담을 25일 오후 3시 국회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은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만나 의논하자”고 제안했고 이날 한 대표가 “환영한다”고 화답해 성사됐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독립된, 수평적 당정 관계를 끌고 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서도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강조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나 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개편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우선 순위

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아직 금투세와 종부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에 이 대표는 전날 회담을 제안하면서 “가장 큰 쟁점인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차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했던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 했다”며 “뜬금없이 또 (특검법) 시한(26일)을 거는 것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민생회복지원금법안)도 의제로 올리고 싶어 한다. 이 대표는 총선 공약이던 이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재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한 대표 역시 ‘일률적 현금 살포’라는 부정적 입장이다. 다만 지구당 부활 등 정당법 개정안은 양측 이견이 적은 만큼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약 11년 만이다. 2013년 11월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민주

당 대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도입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등의 의제를 두고 여러 차례 회담했다. 2021년 7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등에 합의했지만 만찬 형식의 만남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엔 대선주자급 대표의 회담인 만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며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재 기자

‘중도층 민심’ 함께 꺼낸 한·이... 25일 회담이 정치력 시험대

한 “파이 키우며 격차 해소할 것”
이 “성장 회복해 기회 더 만들 것”
중도·진영 지지 동시 확보 관건

“입장 차만 확인 땀 부정여론 형성
결과 낸다면 둘 위상 높아질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양당 대표 회담(25일)을 열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4·10 총선 당시 대결이 의석수를 다투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었다면, 선거가 없는 시기에 벌어질 이번 레이스는 차기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보이면서 진영 내 지지 확보와 중도층 공약을 동시에 이뤄야 하는 고차방정식에 가깝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9일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사신기자단



여야 반복되는 극단정쟁 타개 공감대

둘은 우선 민생을 고리로 중도층을 전장(戰場)으로 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격차 해소 강조는 보수 정당의 좌클릭으로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위상향은 개개 국민의 위상향과 동반될 경우 정말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격차 해소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며 민주당과 선을 그었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며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더 많은 기회

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당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멈춰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를 연속 보수의 트레이드마크인 ‘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제시한 성장 비전은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 고속도로 등 기존 민주당과 궤를 함께했다. 이 대표는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이슈를 앞세운 두 사람은 일사천리로 양자 회담에 합의했다. “국민 삶에 관한 사안은 제한 없이 원하는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면 좋겠다”(이재명), “우리 둘 다 ‘민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뜻에 의기투합하고 있다”(한동훈)며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자 양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실무 논의를 거쳐 25일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정치권에선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며 정국 돌파구를 찾아내는 형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이 신속한 합의에 도달한 건 “극단적인 정쟁이 반복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각자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줄곧 특검법과 탄핵안을 밀어붙여도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 데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협상론이 대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여당이 민생 정책 주도권을 가져와서 ‘유능한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한다” “거대 야당에 무기력하게 밀리는 모습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고민 끝에 전격적으로 대표 회담을 수용했다.

정치권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듯”

다만 회담 의제와 형식을 둘러싼 실무 협상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회담이 앞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구체적인 의제 하나하나가 합의점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특히 민주당이 선(先)순위 의제로 요구하는 순직 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권 내 입장차가 뇌관이다. 친한계에선 “이슈에서 벗어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당 관계자)는 입장이지만, 친윤계에선 “특검법 협상을 벌이는 것 자체가야당의 ‘프레임 전쟁’에 갇히는 자충수”(중진 의원)란 비판적 인식이 팽배

하다. 이 대표 역시 대표 회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의 비타협적인 ‘끝장 투쟁’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견인할 수 있느냐가 숙제다.

그런 의미에서 8·25 대표 회담이 한동훈·이재명 대표 두 사람 모두의 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사람이 이번 회담을 만나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경우, 정국은 광장히 얼어붙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며 “반면에 양당 대표 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낸 이후 영수회담이나 3차 회담으로 이어진다면 지도자로서 둘의 위상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오현석·김정재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www.naturadent.net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의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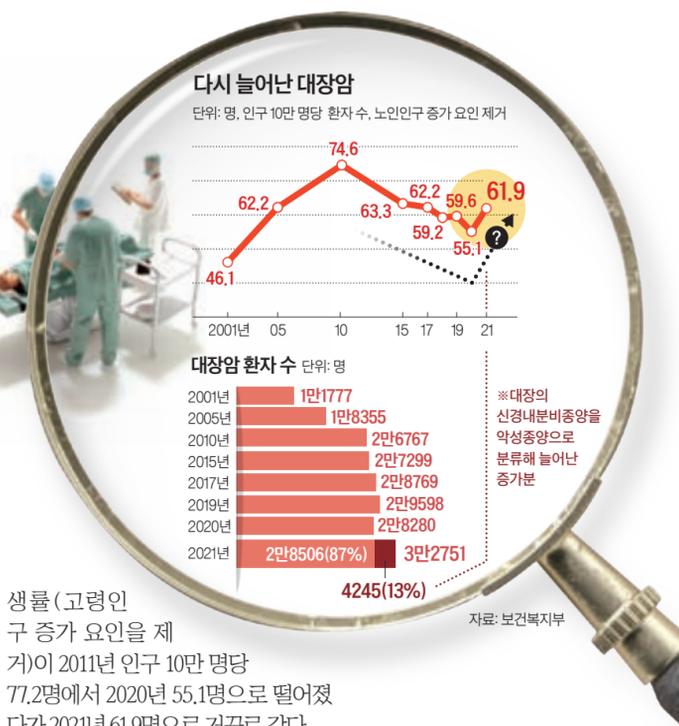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갑자기 늘어난 대장암, 폐암 제치고 2위로

(2021년)

국립암센터·본지 공동분석
2021년 양성종양 일부를 암 포함 '기준' 달라져 4245명이 암환자로 "증가한 걸로 보일뿐 실제로는 감소"

40대 여성 B씨는 2021년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잘라냈다. 조직검사 후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런데 의뢰인이 "암 같지 않은 암이다. 5년 상대 생존율이 100%다"라고 해서 또 놀랐다. B씨는 "지금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다. 암을 앓았다는 생각도 없다"며 "민간보험에서 보험금 5000만원(특약 포함)이 나와 '뜻하지 않은 소득'이 생겼다"고 말한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2011년 정점을 찍은 후 줄곧 감소해 오다 2021년 급증했다. 연령표준화 발



생물(고령인구 증가 요인)을 제외하면 2011년 인구 10만 명당 77.2명에서 2020년 55.1명으로 떨어졌다가 2021년 61.9명으로 거꾸로 갔다.

암 발생 순위도 2020년 3위에서 2021년 폐암을 제치고 2위(갑상샘 제외하면 1위)로 올라섰다. 대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21년 달라진 지점이 원인이다. 중앙학 국제질병분류(ICD-O-3) 2판은 대장·위 등의 양성종양 일부를 암으로 포함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그리 분류한 걸 반영한 조치다. 2021년 4245명이 양성종양(신경내분비종양)으로 분류돼 대장암 환자가 됐다. 전체 대장암 환자 3만2751명의 13%이다. 정규원 국립암센터 암통계부장은 "신경내분비 종양이 악성으로 분류되면서 대장암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감소한다"고 말했다. 위암도 2005년 이후 발생률이 줄곧 감소해 왔다. 그러다 양성종양, 즉 위장관 기질종양 환자 1586명(전체 위암의 5.4%)이 암으로 분류되면서 발생률이 2020년 52.3명에서 2021년 55.3명으로 약간 올라갔다. 박세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

수는 "신경내분비종양은 내시경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장) 내시경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데 따라 진단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이지 유병률(질병을 앓는 인구의 비율)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게 암 보험금을 주지 않아 분쟁이 생기자도 한다. 일부 환자는 보험금 때문에 의사에게 질병코드를 암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김희철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분과 교수는 "신경내분비종양은 암과 종양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다. 분명하게 구별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동희 강북삼성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신경내분비종양은 1cm 미만은 절제하면 문제가 없다. 희귀하기 때문에 정제성이 자꾸 바뀌는 아직은 낮은 암이라서 데이터가 쌓여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장주영·채혜선 기자

질병청 "코로나 환자, 이달 말엔 주당 35만명 될 것"

8월 둘째주 일일 1359명...올 최대 정부, 26만명분 치료제 추가 구매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엔 주당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당국은 특히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신속히 감염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 국장은 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환자 수를 지난해 8월의 절반 수준으로 본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8월 말에는 주당 35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질병청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전국 병원급 이상 220곳 표본감시)는 1359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질병청은 "환자 발생 시 중증 약화 위험이 큰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 관리 속도를 한층 올리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 직원 등 2명 이상

이 집단 감염되면 곧바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는 빨리 해당 시설의 추가 감염 방지 조치 등에 나선다. 감염 증자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염 입소·입원자는 적절한 격리 공간에 머물게 할 예정이다. 다만 면회 제한 등 강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대목도 이달 말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마련할 계획이다. 개학으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각급 학교에는 지난주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했다. 홍 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학생은 집에서 쉬고, 호흡기 증상이 사라진 뒤 등교하도록 안내했다"며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치료제 약 26만2000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액수다. 최근 치료제 수급이 불안정해, 전국 약국에 추가 물량을 빨리 공급해 이달 내로 수급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준훈 기자

취준생 중요하게 여기는 '수상 스펙'...기업 "별로 안본다"

커지는 이력서 '미스매치' 왜
구직자들 "스펙이 취업 좌우" 생각
인사담당자들은 직무능력 더 중시
전문가 "AI 활용한 채용방식이 대안"



외국계 IT 회사의 인사 담당자 박모씨는 코딩 능력과 관심도가 남다른 이른바 '코딩 덕후'를 찾고 있었다. 각종 스펙을 나열한 지원자 이력서를 뒤져도 인재를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정량적인 스펙보다 직무 역량을 더 중시한다"고 밝힌 박씨는 "인턴 경력이나 특이한 요소로 보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스펙을 놓고 취업준비생(취준생)과 채용 기업 사이에 '미스매치(부조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교육이론이 취업준비생과 인사담당자 각 5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기업들은 최근 이런 미스매치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면접에 주목하고 있다. 19일 교육이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펙과 연관된 항목 중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취업준비생이 기업보다 2배 이상 중시한 항목이 10개 중 7개에 달했다. 수상 이력(2.6배), 대외 활동(2.5배), 학점, 인턴 경험(이상 2.3배) 등이 큰 차이를 보였다. 최성욱 서강대 취업지원팀장은 "취준생은 스펙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여주

는 지표라고 여겨 정량적인 스펙을 쌓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업준비생들은 스펙을 '고고익선'(높을수록 더 좋음) '다다익선'(많을수록 더 좋음)으로 생각했다. 취업준비생은 인턴 경력(96%), 자격증(94%), 영어 성적(92%), 수상 이력(78%), 대외 활동(76%)을 중요한 요소로 봤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한모(24·여)씨는 "공모전 수상 2회, 인턴 1회, 대외활동 경험 있지만, 다른 지원자와 비교하니 안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제약회사 취업준비생 김모(30)씨는 "학점(3.0/4.5)이 낮아 토익이라도 900점을 넘기려고 매일 2시간씩 공부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스펙 수

집가' 수준이 되기도 한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취업생 이모(29)씨는 2년째 공기업과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어(토익·오피), 제2외국어(HSK),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점수(급수)까지 봤다. 정작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스펙보다는 지원자가 기업과 직무에 맞는지, 이른바 '핏(Fit)'을 더 보고 싶어한다. 설문에 응한 인사담당자들이 주목한 스펙은 자격증(54%), 영어(46%), 인턴(42%), 출신대(42%) 순이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이명지브랜드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요즘 기업은 인력을 뽑아 잘 키우기보다 즉각 투입할 인력을 뽑으려고 해 (지원자의) 직무 능력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부)는 "기업의 인력 수요 변화를 채용 프로세스가 따라가지 못해 취업준비생들과 사이에 스펙 미스매치가 생긴다"고 봤다. HR(인사관리) 전문가들은 지원자를 직무 중심으로 평가하는 AI 채용 방식을 대안으로 봤다. AI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네시스랩 육근식 이사는 "AI는 지원자의 직무 능력부터 소프트스킬 역량까지 편견 없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선희 교육이론 연구팀장은 "(AI 활용 등) 달라진 채용 방식으로 뽑힌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직무 적합도가 높게 나타날수록 채용 시스템은 더 빨리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원 기자

대표 정희수
703-477-3114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Principal Broker 세련 린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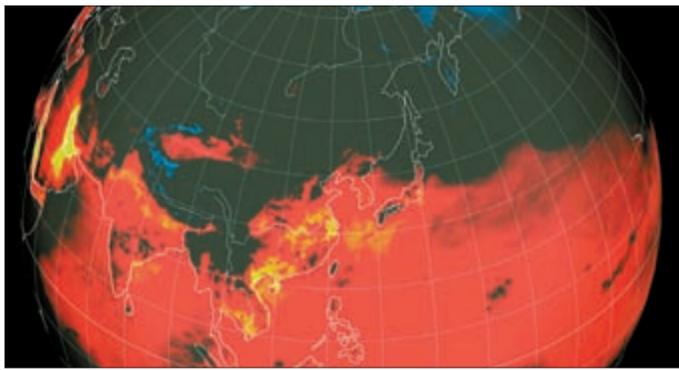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강원·제주가 가장 위험 ... 한은이 보낸 이상기후 경고장

경제영향 '기후위험지수' 첫 발표
강원 이상고온, 제주 해수면 상승
찾은 기상이변, 산업생산에도 악영향
폭염·폭우 뒤 증가율 0.6%p 하락



열섬에 갇힌 한반도 전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8일까지 28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 기상 관측 이래 최장 기간 연속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다. 세계 기상 정보 비주얼 맵인 어스널스쿨로 확인한 19일 오후 1시 한반도 주변 기온과 블래지수가 붉게 표시되고 있다. (뉴스)

한국에서 고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 태백시 매봉산 인근의 고랭지배추밭 40만 평 중 30%는 올해 휴경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가장 서늘한 곳이지만, 올해 여름엔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닥치면서 배추 농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다. 지난해 집중호우의 직격탄을 맞았던 이곳 농민들은 올해는 폭염 피해에 올랐다. 농업진흥청은 기후 변화에 따라 2050년대엔 여름 배추 재배지가 눈에 띄게 줄고, 2090년대에는 아예 사라질 거란 전망을 내놨다.

기후 변화가 농림어업 등 산업생산에 주는 악영향이 갈수록 커져서, 한국은행이 이상기후 지표인 '기후위험지수(CRI, Climate Risk Index)'를 최초로 개발해 내놨다. 기후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포

착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1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정원석 기획조사팀 과장 등 연구진은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위험지수는 ▷이상고온 ▷이상저온 ▷강수량 ▷가뭄 ▷해수면 높이의

변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지표다. 1980~2000년을 기준 기간으로 두고, 2001~2023년의 기후 변화 추세를 포착했다. 기준기간의 월별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온보다 높거나 낮은 날의 빈도수, 매월 비가 가장 많이 내린 5일에 대한 강수량 합계, 월별 평균 해수면 높이 등을

표준화해 하나의 기후위험지수로 나타낸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이상기후 위험성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1980~2000년 기후위험지수 평균을 0으로 설정했을 때, 2001~2023년 기후위험지수 평균은 1.731로 상승했다.

강원도에선 이상고온 빈도 증가세가, 제주도에선 해수면 높이 상승세가 전체적인 기후위험지수를 끌어올렸다. 1985~2023년에 타 지역 평균기온이 3도 상승했을 때, 강원도에선 4.3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의 수온 상승에 따른 열팽창 효과가 발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주에선 1985~2023년 해수면 높이가 19cm 상승해 타 지역 평균(11cm)을 크게 웃돌았다.

산업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근 들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석 과장은 "과거(1980~2000년)에는 이상기후 변화가 산업생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2001년 이후에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특히 농림어업의 경우 이상기후가 성장률을 최대 1.1%포인트 깎아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염이나 폭우 등 예상치 못했던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 약 12개월 뒤 산업생산 증가율을 0.6%포인트 깎아내린다.

기후위험은 노동생산성에도 부정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구 온도가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2030년 노동시간 감축 규모를 풀타임 일자리 개수로 환산하면 8000만 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연구진은 예상치 못했던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 물가를 최대 0.03%포인트 끌어올리고, 물가 상승세가 6개월가량 지속한다고 봤다.

한편 연구진이 최근의 물가 상승세를 별도로 분석해 보니, 이상기후가 지난해 물가 상승분의 약 10%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으로 기후 변화가 비중 있게 자리잡은 것이다. **오호정 기자**

단순통과 차량만 연 141만대, 총장님은 정문 막았다

국립창원대, 출퇴근 시간마다 몸살
박민원 총장 "학생 안전 위해 폐쇄"
대신 개방형 시민광장 조성키로



지난 2일부터 폐쇄된 경남 국립창원대 정문에 차량을 막는 차단벽이 설치됐다. 안대훈 기자

140만8549대. 지난해 경남 국립창원대에 10분 이내로 드나든 '단순 통과 차(車)' 숫자다. 하루 평균 4000대꼴인데, 대부분 평일 출퇴근 시간에 몰렸다. 지난해 기자가 직접 세보니, 5분간 출입한 차만 100대 가까이 됐다. 이 때문에 창원대 캠퍼스는 아침 저녁 교통 혼잡으로 몸살을 앓았다.

단순 통과 차는 주로 시 외곽도로(국도 25호선)를 이용한다. 이 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거나 시내에서 외곽으로 진출할 때, 창원대 북문(2014년 개통)을 이용한다. 다른 경로(창원중앙역 역세권 방면)도 있지만, 출퇴근 상습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아 대학 캠퍼스를 우회도로로 사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차가 몰리는 시간이 학생들 등·하교 시간과 겹친다는 점. 다행히 그간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단 바(bar) 파손 등 크고 작은 사고가 2022년에만 29건 발생했다. 대학은 단



박민원

순 통과 차를 줄이려고 안전부담금 징수(유료

화)를 시도했지만, 지역민 반발로 무산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부산대에서 20대 학생이 지게차에 치어 숨지는 등 최근 전국 대학 캠퍼스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결국 창원대는 "지난 2일 정문을 폐쇄했다"고 19일 밝혔다. 캠퍼스를 관통해 정문↔북문을 오가는 단순 통과 차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 창원대는 정문 폐쇄에 이어 학내 교통체계도 바꾸고 있다. 보행자가 많은 캠퍼스

중심부(대학본부·도서관 방면)를 지나는 차량을 외곽으로 돌리는 게 핵심이다. '북문~캠퍼스 중심부~정문 또는 동문' 경로 대신 '북문~캠퍼스 외곽(운동장 방면)~정문 바깥도로 또는 동문' 경로로 유도하는 것이다.

폐쇄한 정문 일대는 공원 형태의 '개방형 시민 광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비 25억원이 들어 내년 12월 준공하는 게 목표다. 또 정문 바로 옆 주차장에는 국비 등 398억원을 유치해 스포츠·문화 복합시설(아레나·플렉스 창원)을 건립한다. 지상 5층 규모(연면적 8800㎡)로, 실내 수영장장 테니스장·체력단련실·문화전시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황원-안대훈 기자**

한국계 교토국제고, 3년 만에 고시엔 4강

(일본 고교야구 전국대회)

승리 후 "동해 바다~" 한국어 교가



19일 고시엔 본선에서 4강전 진출을 확정된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야구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고시엔(甲子園) 4강에 진출했다. 지난 2021년 고시엔에 처음 나가 4강에 올라선 지 3년 만의 재진출이다. '동해 바다 건너서~'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선수들 모습이 이번에도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다. 교토국제고는 19일 효고(兵庫)현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여름 고시엔 본선 8강전에서 나라(奈良)현 대표 지벤학원을 4대 0으로 꺾었다. 오는 21일 열리는 준결승전에서 승리하면 결승에 진출한다.

교토국제고는 투수 니시무라 이츠키(西村 一毅·고2)와 나가사키 루이(中崎 琉生·고3) '쌍두마차'를 앞세워 연승을 이어왔다. 니시무라

는 이날 완봉 뒤 지난 2021년 지벤학원에 3대 1로 졌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엔) 절대 지지 않겠다"는 기분으로 던졌다"고 말했다.

교토국제고의 전신은 1947년 재일동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세운 교토조선중학교다. 현재 중·고등학생 160여 명이 한국어·일본어·영어 공부하고 있다. 재적학생의 90%는 일본 국적이다. **도쿄=김현에 특파원**



제4회 '중앙회화대전' 시상식 19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아람비가 주관하는 제4회 '중앙회화대전' 시상식이 열렸다.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열린 올해 중앙회화대전에는 신예 및 기성작가의 작품 800여 점이 출품됐다. 왼쪽부터 금상 수상자 오진아·김은정 작가, 대상 수상자 김한호 작가, 최명기 중앙일보 사업국장. 정진영 기자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언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중, 후만중)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중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들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한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우리말 바꾸기

수고양이와 수캐

‘암-’은 성의 구별이 있는 동식물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새끼를 배거나 열매를 맺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새끼를 배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로는 ‘수-’를 붙인다. 고양이와 수컷은 ‘수고양이’라고 한다.

암고양이, 수고양이를 ‘암코양이, 수코양이’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암캐, 수캐’로 인한 혼란이다.

표준어 규정 7항엔 ‘암-’과 ‘수-’가 기본 표준말임을 밝히고 있으나 9개 단어는 예외로 뒀다.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닭, 수탕나귀, 수물찌귀, 수돼지, 수평아리’는 ‘수-’ 다음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고 읽는다. ‘암-’과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다.

본래 ‘암-’과 ‘수-’는 ㅎ을 맨 마지막 음으로 지닌 말(암ㅎ, 수ㅎ)이었다. 오늘날엔 ㅎ 소리가 떨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으나 이들 단어에만 예전 흔적인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을 인정했다.

접두사 ‘수-’에 ㅅ 받침을 붙일 때도 있다. 예외적으로 ‘양, 염소, 쥐’와 결합할 때는 발음상 ㄴ 첨가가 일어나거나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며 사이시옷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고 ‘숫-’으로 적는다. 발음이 [순냥], [순념소], [순쥐]로 나므로 수양, 수염소, 수쥐는 버리고 ‘숫양, 숫염소, 숫쥐’를 표준말로 삼았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프리즘

문제가 문제를 낳는 홈리스 정책



안유희
LA중앙일보
뉴스룸 에디터·국장

LA가 홈리스 위기를 겪은 것은 2차대전 때였다. 급격히 불어나는 인구 증가 속도를 주택 증가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 탓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LA에 제2의 홈리스 위기가 찾아왔다. 경제 활동이 마비되면서 길거리로 내몰린 저소득층이 늘어난 탓이었다.

홈리스는 늘 있었지만 최근 상황은 복합적인 원인과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 때문에 갈수록 난제가 되고 있다.

올해 가주의 홈리스는 17만1000명 수준이다. LA카운티에는 7만5312명, LA시엔 4만5252명이 있다. 가주 인구 비중이 전국의 12%인데 홈리스 인구 비중은 전체의 30%에 이르니 해결은커녕 통제도 벅찬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회계감사관실의 보고서는 상황을 더 암울하게 만든다. LA시는 지난 5월까지 최근 17개월 동안 홈리스 대처에 3억4105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홈리스 주거비에 61%를 썼다. 홈리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력 확보에 31%가 들었다. 홈리스 문제 해결의 핵심 중 하나인 홈리스 영구주택 확보 예산은 5.6%에 불과하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인건비 31%다. 홈리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력 운용에 예산의 3분의 1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대부분은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들어가는 돈이다. 일을

하자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엔 사람이 필요하다. 대신 한 번 고용한 인력은 유지되려는 성향이 강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고정비용이 된다. 61%로 가장 많은 홈리스 주거비도 당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거리의 홈리스를 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비용이다. 영구주택 같은 해결책보다는 임시방편에 가깝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는 홈리스 대처 프로그램이 30개나 된다. 주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여기에 사용한 예산은 240억 달러에 이른다. 30개의 프로그램 예산 가운데 프로그램 자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비용이 많을수록 문제 해결에 직접 사용되는 예산은 준다. 보고서도 이를 우려했다. 홈리스 한 명에 들어간 예산은 연 5만 달러인데 효용성은 높지 않고 예산 사용은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의 결론은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느꼈을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홈리스 문제는 이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문제가

문제를 낳는 상황까지 왔다.

에릭 가세티 시장 시절 공청회도 없이 한인타운에 홈리스 쉼터를 지으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인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가세티 시장 시절 이미 홈리스 예산은 약 1억 달러로 90% 넘게 폭증했다. 소란은 컷지만 문제는 오히려 악화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이 부분을 공격하며 홈리스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베스 시장의 해결책은 ‘인사이드 세이프’다. 이전의 홈리스 정책이 속소로 이용되는 구조물을 철거해 떠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인사이트 세이프는 홈리스를 본인의 동의 아래 모텔 등 임시 숙소로 거처를 옮기고 6개월 안에 영구 주거지를 찾아주는 정책이다. 한눈에도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이다. 올해에만 예산 1억8500만 달러를 들었다. 결과는 초라하다. 줄어든 홈리스 숫자는 통계로 보면 2.2% 정도다. 공약은 했고 민원과 불만은 넘치고 치안 문제는 발생하니 당장 거리에서 임시거처로 옮기는, 단선적인 정책으로 단기간에 난마로 얽힌 문제를 해결할지 의문이다. 해결은커녕 상황 관리도 버거워 보인다.

한쪽에선 벌써 2028년 LA올림픽 걱정이 나온다. 현재 추세면 3만명의 홈리스와 함께 올림픽을 치른다는 계산도 나온다. 지금 LA올림픽의 홈리스는 파리올림픽의 센강이다. 이제라도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홈리스 정책을 현실성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열린광장

형형색색의 미의식



윤경중
연세목화사회 중경회장

“다양성은 아름답다.(Variety is beautiful)” 미국의 이름난 하버드 크리스천 교회 그렉 로리 목사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일 년 열두달의 이름이 가지각색인 것도 아름답다. 8월(八月)을 중국인은 “빠위애”, 일본인들은 “하찌가쓰”, 한국 사람은 “팔월” 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난 날은 같지만 해가 다른 것도, 발생한 해는 다르지만 날이 같은 일도 아름다운 결과다.

1945년 미군 폭격기의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투하로 많은 생명이 숨지고 도시가 파괴되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한국인에게는 해방의 기쁨을 안겨 주었다. 슬픔과 기쁨의 다양성이 아름답게 이뤄졌다. 그런가 하면 1769년 8월15일엔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태어났고, 1914년 8월15일은 파나마 운하가 개통된 날이다.

만물은 다 다르게 생겼다. 이 다르게 생긴 것 때문에 땅덩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만 살펴봐도 그렇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다른 생물도 그렇지만 사람의 남녀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가정해 보면 지구는 참으로 삶을 이룩할 자리가 없는 천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창조주는 남녀가 다른 점을 지닌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피부색에 따라서 백인,황인,흑인으로 나뉘었고, 같은 황인이라도 나라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한 나라 안에서 말씨와 풍속, 사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이런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들을 추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성 부부의 합법화라고 생각한다. 이 법은 남녀 존재의 중앙값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을 느끼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

사나운 비바람이 그치고 따스한 햇볕이 비칠 때 곡선을 그리며 나타나는 무지개는 참으로 아름답다. 일곱 가지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느 한 색깔도 다른 색깔에 가려지지 않는다. 일곱 가지 색깔이 앙상블을 이룰 때 무지개는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사람은 하나의 몸이다. 이 몸을 해부해 보면 머리, 심장, 위, 혈관, 피, 또한 피의 체액이 아니겠는가!” 파스칼의 말이다. 사람의 몸은 색깔이 다양한 기관들이 살아 움직여야 제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 몸의 한쪽이 병들어 있으면 몸이 앙상블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은 아름답지 못하다.

국가는 사람의 몸과 같다. 몸의 기관이 병들면 몸도 병이 드는 것처럼 한 고장이라도 병들어 있으면 나라가 병들어 있는 꼴이다. 나라가 병들어 있으면 이는 색맹과 같다. 색맹이 되면 무지개의 일곱 가지 색을 가려내지 못한다. 앙상블의 묘미를 터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지각색의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이 뚜렷해야 한다.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8월 스페셜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선천성 허약체질, 월경이상, 만성피로, 두통, 어지러움, 체력저하,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30 \$250.00

광동 침향환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미 필요 없는 명품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위건강엔 마스크

캐변플러스 코팅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여에스터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가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코크린 정 기질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농협용심 인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암세포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세종 송보감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씨, 관절 건강에 최고!!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글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민간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UNITED AIR CHINA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info@toptravelusa.com
 문의: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8월의 추천투어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10박11일
 9/25~10/5
\$2,890
 +항공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 고 윤태웅

2024 크루즈
 알래스카
 7박 8일 8/30~9/6 **\$1990**~부터
 (인사이드, 항공포함)

남부 카리브해
 12박13일 12/7~12/19 **\$1390**
 (인사이드)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대장만화**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23~1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대장만화**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대장만화** 10박11일 \$29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대장만화**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대장만화**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대장만화** 10박11일 \$2990+항공
 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대장만화** 10박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3590+항공
 10/29~11/08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11일 \$299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2/17~2/26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두바이 13박14일 \$11,500+항공

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 10일 \$3990+항공

4/14~4/20 볼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 7일 \$2990+항공
 4/15~4/25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4/28~5/06 정통 동유럽 9박10일 \$3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13~5/23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멜로톤 3박 4일 \$1290+항공

<p>9월 정통 서유럽 서유럽의 핵심 도시들을 한번에! 9/10~9/20 대장만화 9/23~10/3 대장만화 10박11일 \$3,490 +항공</p>	<p>10월 스페인 & 포르투갈 대장만화 10박11일 10/8~10/18 \$3,190 +항공</p>	<p>1월 신비의 인도 인도의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 아그라, 핑크시티 자이푸르, 파테푸르시크리 12박13일 1/28~2/9/25 \$3,390 +항공</p>
<p>9월 정통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동유럽 관광은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 8박 9일 9/18~9/26 \$3,290 +항공</p>	<p>11월 코스타리카 전 국토가 국립공원, 중남미의 푸른 유토피아 생태관광 4박 5일 11/27~12/1 (추수감사절 특선) \$1,190 +항공</p>	<p>2월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2/17~2/26/25 \$3,590 +항공</p>
<p>9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9/18~10/1 \$4,390 +항공</p>	<p>12월 이태리 일주 밀라노-베니스-볼로냐-피렌체 로마-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6박 7일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2,390 +항공</p>	<p>2월 아프리카 & 두바이 13박14일 2/20~3/5/25 \$11,500 +항공</p>
<p>9월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9/25~10/1 \$2,890 +항공</p>	<p>2025 1월 파타고니아 남극과 가장 가까운 '지구의 끝' 천국과 우주가 공존하는 여행자들의 지상낙원 10박11일 1/14~1/24/25 \$6,790 +항공</p>	<p>3월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3/17~3/29/25 \$5,490 +항공</p>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4-2026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 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탑여행사가 직접 만들고 떠납니다

3차 9/24~10/4 **대장만화**
 4차 10/15~10/25 **대장만화**
 5차 10/22~11/1 (단풍특선) **대장만화**
 6차 10/29~11/8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특징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 / 전주 안옥마을 라만호텔 / 여수 소노캄 / 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 / 경주 라안셀호텔 / 속초 롯데리조트 / 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동남아 여행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매주 일요일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매주 금요일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매주 일요일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매주 일요일

3박 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 5일 **푸켓** \$599+항공
 3박 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 4일 **동경** \$999+항공
 3박 5일 **오카** \$999+항공
 3박 4일 **대만** \$690+항공
 3박 5일 **싱가폴** \$790+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브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약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브검진) 남 100만원 /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브검진) 남/여 \$460
 현대백화점(서울대병원)기브검진

Hong Jin-young
 홍진영 콘서트 티켓 판매처
 일시: 8월 31일(토) 8pm (개장: 6:30pm)
 장소: Live! Casino(21+ Event)
 문의: 레나 고 (703-663-8534)

노동절 특선

2박 3일 \$699
 8월 31일 출발

레치워스/나이아가라
 워킹스글렌

3박 4일 \$950
 8월 30일 출발

천성/몽뜨랑블랑
 몬트리올/퀘벡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미동부 베스트셀러

뉴욕, 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 6일 \$1350
 대행버스출발: 9/16, 10/14

뉴욕 동부 명소 해안 산책
 1박 2일 \$399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드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대행버스출발: 9/23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엘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가을 단풍 여행

3박 4일 **천성/몽뜨랑블랑 몬트리올/퀘벡**
 10/14, 10/21, 10/28 **\$950**

당일 여행 **컴버랜드 기차여행** 단체여행 할인
 10/17, 10/25, 10/26, 11/2 **\$159**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August 20,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적인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독서 분위기가 중요, 부모부터 읽어라

전문가들의 독서 조언 자녀 교육을 위해서 특히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중앙일보가 신문사이기 때문이 아니다. 최근에 트렌드로 주목을 끌고 있는 챗GPT만해도 원리는 책을 읽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서는 사람도, 머신 러닝을 하는 컴퓨터도 모두 같은 원리로 유용하다는 점이다. 책을 많이 읽는 자녀가 공부도 잘한다는 것은 상식도 아니고 기본 진리일 정도다. 하지만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학부모도 별로 없다. 이제까지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옆집 자녀의 모습이 부럽기만 했다. 도대체 옆집의 비결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다.

장르 상관말고 닥치는대로 읽혀야 칼리지보드 추천 고전 101권 좋아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책을 잘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유튜브나 독서로 자수성가한 몇몇 유명인들은 집에 책이 없어서 쓸데 없는 책부터 읽기 시작했다. 전설같은 얘기를 하곤 한다. 그것은 아무런 책임이 필요 없는 유튜브에서 가능한 얘기다. 이제 책을 잘 읽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2024년에 자녀를 기르는 학부모들에게는 지극히 극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학부모들이 매일 저녁에 보던 TV와 넷플릭스, 유튜브를 보던 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 이 시간에는 TV는 물론이고 컴퓨터도 모두 끄고 어머니는 키친 식탁에서 아버지는 리빙룸에서 아이는 방에서 각자 독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처음에는 아이보다 아버지를 설득하기가 더 어렵다. 갑자기 평생 관심도 없던 세계 정세를 논하는 웃지 못할 촌극도 있다. 하지만 제대로 설득이 되면 남편이나 아들도 저녁 식사 후에는 각자 지정된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펴서 읽는 습관을 갖게 된다. 심지어는 아예 케이블이나 넷플릭스를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자녀는 방문을 활짝 열어 뒤 컴퓨터를 켜지 못해 짜증을 내다가 점차 꾸준히 책 읽을 시간을 5분에서 10분, 15분으로 늘리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정은 독서를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위에 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녀가 주위에 책 한 권 없는 학생보다 독서에 친숙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책을 읽지 않는데 자녀들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녀의 독서 습관 부모가 독서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독서를 방해하는 말과 행동은
-자녀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필요한 이상으로 칭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녀는 그저 자기들이 좋아서 읽을 뿐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읽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책을 읽도록 설득하는 것은 맞지만 절대로 자녀의 기분을 맞춰 주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서는 안된다. 반대로 계속 조르듯이 책을 읽으라고 독촉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녀가 읽은 책에 대해서 종류나 내용을 비판해서는 안된다. 자녀가 읽는



자녀의 독서는 책을 읽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 주고 독려하는 것이 좋다. (빙닷컴 copilot 생성)

잡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조언으로 부모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독서를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려면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책을 재미있게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라.
-집에 읽을 거리를 곳곳에 놓자. 이중 자녀가 관심 있는 장르를 알 수 있다.
-자녀가 스스로 관심있는 장르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갔을 때 각자 자신이 읽을 책을 찾는 시간을 갖자.
-재미있게 읽은 신문기사나 유익한 정보, 의미있는 메시지 등을 올려서 냉장고 문에 붙이거나 테이블에 스크랩북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자. 읽도록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가능하면 자녀가 읽는 연령대의 소설책 하나쯤은 부모가 읽어두는 것도 좋다. 또래의 자녀에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지도 배울 수 있다.

심층 독해(Critical Reading) 시켜야
-심층 독해는 SAT가 개정되어도 대학에서 필요한 필수 능력이다. 이해 수준이 아닌 비판, 판단, 예측, 유추, 결론을 알아야 한다. 머릿 속에서 새로운 글을 쓰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 자체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SAT가 힘들다. 이런 심층 독해 능력은 꾸준한 독서로 길러진다.
-새로운 SAT는 신문을 많이 읽는 학생에게 특히 유리하다. 고전은 기본이고 닥치는대로 읽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음은 SAT 주관기관인 칼리지보드에서 추천하는 101권이다. 학부모가 함께 읽고 즐거리와 느낌을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순서는 저자의 라스트네임 순서다.

장병희 기자
▶ 2면 '독서 조언'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 Q**
1. What is your GPA, SAT, or ACT score?
 2. What extracurricular activity related to your major did you excel in the most?
 3. What aspect of your college application did you focus on the most?
 4. What were your criteria for choosing a university?
 5. If you could go back four years, what kind of high school experience would you like to have?
 6. Is there anything you regret or wish you had done differently during the college application process or high school?
 7. Do you have any advice for younger students?
 8. If you imagine yourself 10 years from now, where and what do you see yourself doing?
 9. How did you manage your busy schedule?

“Time Management is a Skill You Need to Work for”

A 1. GPA 4.67
 2. I spent the majority of my time as an active member and then leader of a medical program on campus where I was a lead student trainer for athletic training. I managed to work around 300+ hours in athletics as well as hosting and attending several community service events that related to the career pathway I wanted to follow (cancer fundraising, EKG screenings, blood drives). I also spent my time as a member of California HOSA where I placed as an international finalist at one point and even became the Cal-HOSA President going into my senior year.



Erin Kim
 Valencia High School
 U Penn(Nursing)

3. Activities were my strongest suit so I used it to my advantage in correlation with the word counts. I also focused a lot on my supplemental essays because I believed that that was

the one opportunity to see who you are as a student besides numbers and letters. I added a creative twist to each of my supplementals in order to stand out more.
 4. I knew from the beginning I wanted to attend a university that was located in a urban or suburban setting so I took that into account. Provided majors were also a big thing I looked at since I carefully picked my majors based on what career I wanted to follow.
 5. A more outgoing experience with staff and peers to begin with. People think it's so scary to be outgoing but they don't realize how beneficial it can be in terms of finding connections

and being given beneficial opportunities.
 6. Start the college applications a lot sooner and research schools a lot sooner; if not you'll end up having to cram in info last minute. Supplemental essays may not seem like a lot until you have three colleges you have to turn in one day and each one requires a formulated essay(s).
 7. Try everything, and take advantage of the four years of time you have. You really only have one go at this so whatever opportunity comes in your path, just take it. And if it's not for you, you can always put that opportunity down and try something else. It's all about

trial and error.
 8. To be a nurse practitioner specializing in pediatric oncology. After achieving my BSN, I'll most likely go to grad school to become an NP.
 9. Plan everything out accordingly; time management is a skill you need to work for, it's not something you acquire naturally. Whether it may be getting a planner or setting reminders/alarms, find something that works for you. Once you figure out how to manage your time, it becomes a gift. But don't take on so much on your plate to the point you burn yourself out so quickly.
Esther Kim (Education Columnist)

▶ 7면 '독서 조언'에서 이어집니다

▶ 무명 / Beowulf(베어울프) ▶ Achebe, Chinua / Things Fall Apart ▶ Agee, James / A Death in the Family ▶ Austen, Jane / Pride and Prejudice(오만과 편견) ▶ Baldwin, James / Go Tell It on the Mountain ▶ Beckett, Samuel / Waiting for Godot(고도를 기다리며) ▶ Bellow, Saul /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 ▶ Bront, Charlotte / Jane Eyre(제인 에어) ▶ Bronte, Emily / Wuthering Heights ▶ Camus, Albert / The Stranger(이방인) ▶ Cather, Willa / 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 Chaucer, Geoffrey / The Canterbury Tales(캔터베리 이야기) ▶ Chekhov, Anton / The Cherry Orchard(벚꽃동산) ▶ Chopin, Kate / The Awakening ▶ Conrad

, Joseph / Heart of Darkness ▶ Cooper, James Fenimore / The Last of the Mohicans(모히칸족의 최후) ▶ Crane, Stephen / The Red Badge of Courage ▶ Dante / Inferno(지옥) ▶ de Cervantes, Miguel / Don Quixote(돈키호테) ▶ Defoe, Daniel / Robinson Crusoe(로빈슨 크루소) ▶ Dickens, Charles / A Tale of Two Cities ▶ Dostoevsky, Fyodor / Crime and Punishment(죄와 벌) ▶ Douglass, Frederick /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 ▶ Dreiser, Theodore / An American Tragedy ▶ Dumas, Alexandre / The Three Musketeers(삼총사) ▶ Eliot, George / The Mill on the Floss ▶ Ellison, Ralph / Invisible Man ▶ Emerson, Ralph Waldo / Selected Essays ▶ Faulkner, William / As I Lay Dying ▶ Faulkner, William



/ The Sound and the Fury ▶ Fielding, Henry / Tom Jones ▶ Fitzgerald, F. Scott / The Great Gatsby(위대한 개츠비) ▶ Flaubert, Gustave / Madame Bovary(보바리부인) ▶ Ford, Ford Madox / The Good Soldier ▶ Goethe, Johann

/ Wolfgang von Faust(파우스트) ▶ Golding, William / Lord of the Flies(파리대왕) ▶ Hardy, Thomas / Tess of the d'Urbervilles(테스) ▶ Hawthorne, Nathaniel / The Scarlet Letter(주홍 글씨) ▶ Heller, Joseph / Catch ▶ Hemingway, Ernest / A Farewell to Arms(무기여 잘 있거라) ▶ Homer / The Iliad(일리아드) ▶ Homer / The Odyssey(오딧세이) ▶ Hugo, Victor / The Hunchback of Notre Dame(노틀담의 꼽추) ▶ Hurston, Zora Neale /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 Huxley, Aldous / Brave New World ▶ Ibsen, Henrik / A Doll's House(인형의 집) ▶ James, Henry / The Portrait of a Lady ▶ James, Henry / The Turn of the Screw ▶ Joyce, James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 Kafka, Franz / The Metamorphosis ▶

Kingston, Maxine Hong / The Woman Warrior ▶ Lee, Harper / To Kill a Mockingbird(앵무새 죽이기) ▶ Lewis, Sinclair / Babbitt ▶ London, Jack / The Call of the Wild ▶ Mann, Thomas / The Magic Mountain ▶ Marquez, Gabriel Garcia /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백년간의 고독) ▶ Melville, Herman / Bartleby the Scrivener ▶ Melville, Herman / Moby Dick(모비딕) ▶ Miller, Arthur / The Crucible ▶ Morrison, Toni / Beloved ▶ O'Connor, Flannery / A Good Man is Hard to Find ▶ O'Neill, Eugene / Long Day's Journey into Night ▶ Orwell, George / Animal Farm ▶ Pasternak, Boris / Doctor Zhivago(닥터 지바고) ▶ Plath, Sylvia / The Bell Jar ▶ Poe, Edgar Allan / Selected Tales

장병희 기자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8월 HOT 리스팅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엔나 타운홈
 방3+와3+차고2
 2001년, 2100sf
 젤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와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와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와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와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와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황금세대, 어른들에게 질문을 던지다

눈물과 감동, 한숨과 경탄을 자아내던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국가대표팀의 모든 선수, 코치, 그리고 지원인력에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올림픽의 환호성은 이제 사라져가지만, 우리에게 남은 안세영(사진) 선수가 던진 질문이 아직 남아 있다.



불 필요가 있다. 회사의 인트라넷에 올라온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는 실행행사일 수도 있다. 말없이 조직을 떠나는 모습일 수도 있고, Z세대 조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 막내'는 없다는 사실이다. 각자 자신의 성향에 따라,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선택할 뿐이다.

이번 국가대표 선수들은 '황금세대'라 불린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체격조건이 탁월하고 기량도 뛰어나다. 국력이 올라간 데 따른 후광효과도 있고, 개개인의 역량도 뛰어나다고 해서 '황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발적이며 멘탈도 강하다. 메달을 따면 '내 노력의 결과'라고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자신감도 보기 좋았지만 '메달 못 따도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탈락 소감도 몇몇 보인다.

라의 국가대표 양성 시스템, 이대로 괜찮을까.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 '협회에 실망해서 함께 가기 힘들다'는 발언을 했다. 그 파장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대로다. 인터뷰 시점이 아쉽다는 평부터 혼자 딛 금메달이 아니라는 선배의 훈수까지 이어졌다. 배드민턴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까지 나서서 안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신의 인터뷰가 일으킨 파장을 본 안 선수는 '짜우자는 것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배드민턴협회, 그리고 체육계 관계자 어른들은 안 선수가 '질문'을 했다고 받아들였으면 한다. 협회마다 운영 방식이나 규정이 다르고 성과도 그에 따라 달라지는데 더 잘하는 협회를 벤치마킹하여 개선할 점 없는지, 선수에 따라 맞춤형 훈련이나 지도는 왜 안 되는 것인지, 개인의 성과가 협회 그리고 국가의 성과와 잘 정렬되어 같은 곳

개별화 특징 드러내는 Z세대도 목소리 내는 것에는 부담 느껴 성향·조직에 따라 선택 달라 그들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야

을 향하고 있는지, 세계적인 수준의 천재 선수'가 나타났을 때 그를 지원할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안세영 선수는 자신이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천재 소녀조차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그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의 성격에 따라 목소리를 아예 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아마 많은 선수가 안 선수의 목소리에 '말 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안 선수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른 손흥민 선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축구협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조직의 어른들은 지금 '황금세대 조직구성원'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우리가 유지하는 조직의 형태는 '최선'이 아니다. 기업 조직은 그 어떤 조직보다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도 조직의 변화 속도는 환경과 인적자원의 그것을 따라 잡기 버거웠던 것이 사실이다. 체육협회와 같은 공적 성격을 지닌 조직은 그 변화가 더 느릴 수밖에 없다. 리더에게는 '막내'들이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든 그것을 파악하고 답을 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이 어려서 저지르는 실수와 판단 미숙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내가 옳다'고 방어하는데 전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들이 던지는 질문에 집중하기 바란다.

막내들은 결코 조직이나 어른들과 싸우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질문을 던질 뿐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어른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은형 국민대 경영대 교수
대외협력처장

김상현의 과학 산책

발 속의 보물

"언젠가 누군가는, 이 난장 속에서 쓸모 있는 걸 찾아낼 거야." 친구 슈발리에를 향한 편지는 마무리되었다. 어느덧 새벽이었다. 위대한 발견을 모두 적기에 하룻밤은 너무 짧았다. 동은 곧 텅고, 스무 살의 에바리스트 갈루아(1811~1832)는 결투장으로 향했다. 이 편지는 그의 유서가 되었다.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유력 혁명가. 갈루아의 장례식은 일련의 사건

들과 맞물려 공화주의자의 폭동으로 번졌다.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민중의 소리가 들리는가' 장면으로 그려진 봉기이다. 하지만 수학자로서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학창시절부터 천재인 척하는 '잡난체쟁이'로만 몰렸다. 지나친 비약과 들끓는 심성 때문이었다. 원하던 대학에는 두 번 낙방했다.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는 학생은 처음이다." 고등학교

교 졸업시험을 주관했던 한 선생의 평이다. 어렵풋한 그의 천재성을 믿었던 수학 시험관 덕분에 그나마 다른 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의 연구 주제는 야망만큼이나 광활했다. 모든 방식의 해를 찾는 문제였다. 그는 방정식마다 숨겨진 대칭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혁명적인 아이디어



였으나 설명은 서툴렀다. 코쉬·푸아송·가우스와 같은 대가들도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없었다. 사후 십수년이 지나야 수학계는 그 발견의 위대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혁명운동으로 투옥되었던 한 해 동안의 발견. 그 내용이 담긴 갈루아의 마지막 편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심사를 거듭할수록, 학생의 재능은 발 속에 숨겨진 보물처럼 느껴진다. 완전히 꺼내볼 때까지 제대로 가늠하는 것은 어렵다. 기준을 이리저리 대조지만, 갈루아나 아인슈타인을 떨어뜨린 심사관으로 역사에 남는 것 아닐까 두렵다. 그나마 노력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려는 약간의 따뜻한 시선이다. 갈루아의 발견이 전해진 것도 그 보물의 가치를 믿어 준 친구, 슈발리에 덕분이었다.

고등과학원 수학과 교수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DC 건물 리스팅 하실 건물주 분들!

DC 창고 SOLD \$2.5M DC, NoMa Metro 상권	DC 사평센터 SOLD \$2.4M DC, Capital Hill 지역	DC 단독건물 SOLD \$1.5M Benning Rd. 개발지역	DC Mixed-Use SOLD \$1.6M Capital Hill 지역	DC 사평센터 SOLD \$4.5M Popeyes, 연인력 \$32만	DC NW 아파트 SOLD \$1.5M Metro 상권, 5 유닛
DC Georgetown SOLD \$1.5M Retail / Residential	DC H Street LEASED 단독건물 Union Station	DC Warehouse SOLD \$6.8M 67,000sf, Industrial	DC Warehouse SOLD \$5.8M 56,000sf, 창고 60여개	DC Warehouse SOLD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for SALE \$1.8M DC 3 유닛 주상복합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재정 보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어떻게 하면 학자금 재정 보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공통적이고 꼭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물론 소득이나 자산이 특별히 많지 않은 부모는 매우 간단해서 버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 재정보조를 받게 될 것이지만, 어느정도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부모는 대학 학비가 큰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자산은 학자금 보조 액수 결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산 중에 재정 보조 받는데 영향을 주는, 즉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산은 Assessable asset이라고 하여 checking account, savings account, 주식, 채권, mutual funds, 529 plan, education savings account, 신탁, 투자 부동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즉 이런 종류의 자산이 있는 가정들은 그 자산 때문에 가정 부담금이 높아지고 결국 재정 보조 액수는 낮아지는 것이다.

그럼 학자금 재정 보조액 산출시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있는가? 그것은 Non-assessable asset이라고 하여 annuity, cash value 생명보험, 모 든 은퇴 연금(IRAs, 401(k)s, 403(b)s), home equity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학자금 재정 보조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계획해서 Assessable asset이 있는 가정은 그것을 줄여서 Non-assessable asset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럼 Non-assessable asset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연금이라고도 부르는 annuity는 본인의 재산을 일정한 곳에 투자해 일정 연령 이후에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투자 상품이다. 은행의 Checking 어카운트나 CD에 Cash로 재산을 갖고 있으면 학자금 재정 보조 신청에 당연히 반영이 되지만 어뉴이티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단, 투자하기로 한 일정 기간 이전에 찾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단점은 있다.



줄리 김
탐에듀피아 대표



둘째, 생명보험은 대부분 학자금 재정 보조에 반영되지 않는다. Cash Value가 쌓이는 생명보험의 경우 그것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학비로 쓸 수도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부모의 은퇴 재산은 학자금 재정 보조를 신청할 때 반영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401K, IRA, Keogh 등이 있다. 학생 이름으로 된 IRA는 Federal Methodology(FAFSA를 사용해서 학비보조를 산출하는 연방방식)에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Institutional Methodology(주로 사립 대학들-CSS Profile을 사용하는 대학 방식)에서는 포함된다.

넷째, 집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재정보조를 받지 못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부모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첫 번째 집은 그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집이 있다고 무조건 학자금 재정보조를 못받는 것은 아니다. 그 단적인 예가 FAFSA 신청시 첫 번째 집에 대한 재산 가치를 물어보는 질문은 없다. 하

지만 CSS Profile에는 첫 번째 집에 관련된 것도 입력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은 FAFSA만을 요구하는 대학(주로 주립대학)을 지원할 경우는 첫 번째 집에 관련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다. 단, 두 번째 집이나 별장 등은 모두 반영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동차와 같은 개인 재산 중의 일부는 학비보조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몇몇 대학들은 차의 모델과 연도까지도 기입하라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부모의 생활 모습이 학비보조 결정에 주관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때문에 고민만 하지 말고 미리 미리 계획을 짜고 본인에 맞는 재정 설계를 해 둔다면 최대한의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두자.

문의 : 703-576-7803, Email : topedupia@gmail.com

에듀 포스팅

석차·GPA·SAT 등 합한 아카데미 인덱스...기준 이하는 지원서 리뷰 안하는 대학도

아이비리그에서 보는 아카데미 인덱스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는가?

아이비리그 및 다른 명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아카데미 인덱스(AI)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아카데미 인덱스가 무엇인지, 대학들이 이 지표를 어떻게 계산하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자.

▶아카데미 인덱스(AI)란 무엇인가

아카데미 인덱스(AI)는 아이비리그 및 명문 대학들이 입학 사정 시 지원자들에게 부여하는 점수이다. 이 점수는 지원자의 고등학교 학업 순위(Class Rank), 학업 성적(GPA), 표준화 시험 점수(SAT/ACT/AP) 등을 조합하여 환산한다. 입학 사정관들이 지원서를 검토하기 전에 가장 먼저

AI 지표를 확인하고, 기준치에 맞는 지원서들만 검토하게 된다.

이런 AI 시스템은 처음에는 운동 선수들의 영입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명문 대학의 입학 심사 과정의 첫 단계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의 지원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입학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AI 지표는 많은 지원서를 선별하는 첫 단계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는 AI 지표에 맞지 않는 지원서는 리뷰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카데미 인덱스 계산

고등학교마다 GPA와 석차 등 학업 성적을 제공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동일한 방식으로 AI를 산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

어, 석차가 없는 학교의 경우 GPA에 더 가중치를 두거나 SAT, ACT, AP 등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음은 대학에서 AI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를 가상의 예로 들 어본 사례다.

- SAT/ACT 점수: 50%
 - GPA: 30%
 - 학업 석차: 20%
- 이런 가상의 %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가진 학생의 AI 지수를 계산해 보자.
- SAT 점수: 1500점
 - GPA: 4.0
 - 학업 석차: 상위 5위 (2.5%)
- 이 학생의 AI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AI= (1500/1600 SAT) x 50% + (4.0/4.0 GPA) x 30% + (100/2,5%

Rank) x 20%
· AI= 46.9% + 30% + 19.4% = 96.4%
이 학생의 AI 지수는 96.4%로 환산되었고 그는 또 등급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AI 지표의 중요성

하버드 대학의 2028년 졸업생 통계를 보면, 4명 중 3명의 학생이 GPA 4.0을 받았고, SAT 중간 점수는 1550 점이었으며, 94%의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상위 10%에 들었던 학생들이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이처럼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AI 지수는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 즉 특별활동, 추천서, 에세이 등의 중요성 또한 당연히 특별하게 잘 준비되어야 합격률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대학 입학의 기본은 내신 성적이나만큼 개학을 앞둔 학생들은 도전적인 클래스 선택을 미루었다면 수업을 변경할 수 있는 2주 Window Period를 활용하여 자신의 클래스를 변경할 수 있다.

여름방학 동안 수학을 선행 학습한 학생들은 수학 수업 난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와 상의하여 수학 수업을 앞당기거나 더 높은 수학 클래스로 배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또한, 학업 난이도와 클래스 선택을 신중히 고려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는 Honor 또는 AP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도 성적을 향상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학업의 깊이를 더하고, 보다 도전적인 학습 환경에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겠다.

수변 원장 보스턴 에듀케이션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원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메달리스트 허미미 일주일간 1300km 달렸다

재일동포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22·경북체육회)가 파리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허미미는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57kg급 은메달과 혼성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5일 귀국한 그는 이틀 낱인 6일 대구 군위군에 있는 현조 할아버지(독립투사 허석 선생)의 묘소를 찾아가 메달을 바쳤다. 그리고 지난 12일 올림픽 폐회식이 끝나자마자 더욱 바빠졌다. 특히 광복절을 맞아 독립투사의 5대손인 허미미의 주가가 급상승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 팔도를 누비는 아이돌급 스케줄을 소화했다. 이동 거리만 무려 약 1300km에 달한다.

허미미의 분주한 일정은 지난 12일 시작했다. 서울에 머물던 허미미는 이날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경북도 선수단 환영식'에 참석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격려를 받았다. 이튿날인 13일엔 소속팀이 있는 경북 김천으로 자리를 옮겨 김충섭 김천시장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숭실대 체육관 없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이날 열린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행사를 마친 허미미는 다시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튿날인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 특별초청 대상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오후엔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광복회 유족회원증 전달식에 참가했다.

광복절인 15일에도 그는 쉬지 못했다. 이날 오전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기념 타종식 행사에 참여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허미미는 16일엔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 유도대회'를 찾아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오후 소속팀 숙소인 경북 김천으로 돌아온 허미미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18일 가족이 있는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허미미는 "할아버지의 손녀라서,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러운 일주일이었다. 난생 처음 훈련보다 빠박한 일정을 소화했다. 무척 피곤해서 이동할 때는 차에서 기절한 것처럼 잤다. 힘들고 피곤했지만, 즐겁게 스케줄을 마쳤다. 일본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음 LA 올림픽을 향해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피주영 기자**

'남북한 시상대 셀피' 파리올림픽 10대 뉴스에

AFP 선정... "보기 드문 장면 호평" 1위는 우중 개회식 '센강 퍼레이드' 조코비치 '골든 그랜드슬램' 2위 성별 논란, 로페스 5연패도 순위에

남북한 탁구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이 AFP가 선정한 2024 파리올림픽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AFP는 18일 파리올림픽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탁구 혼합복식에 출전해 동메달을 따낸 임종훈(한국거레소)-신유빈(대한항공) 조가 북한의 은메달 조 리정식-김금용과 함께 시상대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장면이 6번째 뉴스로 이름을 올렸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지난달 30일 열린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홍콩의 왕충팅-두호이켵 조를 4-0(11-5, 11-7, 1-7, 14-12)으로 물리쳤다. 리정식-김금용 조는 결승에서 세계 1위 왕추천-쑤잉사 조에 져 금메달을 놓쳤다.

시상식이 끝난 뒤 남북의 탁구 선수들은 금메달을 획득한 왕추천-쑤잉사(중국) 조와 함께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으로 기념 촬영을 했다. 입상자 중 덩치가 가장 좋은 임종훈이 스마트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 임종훈(왼쪽), 신유빈(왼쪽 다섯째)과 은메달을 따낸 북한 리정식(왼쪽 둘째), 김금용(왼쪽 넷째), 금메달리스트 왕추천(왼쪽 셋째), 쑤잉사(오른쪽)가 시상대에서 함께 삼성전자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을 잡았다. 이리저리 '각'을 맞추다가 신유빈, 북한-중국 선수들과 함께 '셀카'를 찍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후원사인 삼성은 파리올림픽 시상식에 참여한 선수들이 직접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함께 찍는 세리머니를 펼치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덕분에 북한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이 국산 스마트폰의 사진 한장에 함께 담기는 진풍경이 나왔다. AFP는 "남북 탁구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이라는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파리올림픽 10대 뉴스 중 1위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화려하게 치러진 개회식 센강 퍼레이드가 꼽혔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스타디움이 아닌 강에서 열린 이번 개회식에서 각국 선수단은 배를 타고 센강 위에서 '선상 행진'을 하며 입장했다. 각국 선수단이 수백여 척의 배에 나눠 타고 센강을 지나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2위는 테니스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 달성이 차지했다.

테니스에서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은 호주오픈·프랑스오픈·윌블던·US 오픈 등 4대 메이저 대회 우승과 함께 올림픽 금메달까지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1987년생으로 만 37세인 조코비치는 5번째 올림픽 도전인 파리올림픽에서 대기록을 수립했다.

3위는 체조 여자 마루운동 시상식에서 '체조 여제' 시몬 바일스와 조던 차일스(이상 미국)가 금메달리스트 레베카 안드라드(브라질)를 예우하는 장면이 선정됐다. 차일스는 시상식 이후 체점 문제로 동메달을 아나 바르보수(루마니아)에게 내줬지만, 스포츠맨십을 발휘했다.

'인간 탄환' 노아 라일스(미국)가 0.005초 차이로 키세인 톰프슨(자메이카)을 제치고 우승한 육상 남자 100m, 파키스탄의 아르샤드 나딤이 인도 니라즈 초프라를 꺾고 우승한 육상 남자 창던지기 4, 5번째 뉴스로 소개됐다.

2010년생으로 만 14세인 아리사 트루(호주)가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스키이트보드, 복싱 여자부 경기에서 불거진 성별 논란, 레슬링 미하인 로페스(쿠바)의 올림픽 사상 최초의 개인 단일 종목 5연패, 특유의 담담한 표정으로 화제가 된 터키 사격 선수 우수프 디케츠도 7-10번째 뉴스로 소개됐다. **피주영 기자**

TXT·에스파 공연, 3cm 코앞에서 본다... 현실이 된 'VR 콘서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승준 어메이즈VR 대표

메가박스서 잇따라 단독 개봉

"경이롭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아" 응원봉 흔드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지난달 31일 메가박스에서 단독 개봉한 '하이퍼 포커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브이알(VR, 가상현실) 콘서트'의 관객 반응이다. 작품은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VR 버전 콘서트와 제작 비하인드를 묶은 형태다. 관객은 상영 전 극장에서 제공한 VR 기기를 착용한 채 콘서트를 관람하는데, 멤버들이 코앞 3cm 정도로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친밀한 교감이 가능하다.

이 콘서트는 VR콘서트 제작유통기업 어메이즈VR의 작품이다. 지난달 말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만난 이 회사의 이승준(41) 대표는 "VR은 콘텐츠 시장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R 콘서트의 장점은 뭔가. "수백여원의 비용이 드는 미국 슈퍼볼 무대도 VR에선 순제작비 1억~2억 원이면 만들 수 있다. 티켓을 구하기 위해 애를 필요도 없다. VR 기기만 있다면 누구나 2만~3만원대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코앞에서 볼 수 있다."

서울과학기술과 카이스트를 졸업한 그는 10년 전 삼성이 출시한 VR 기기를 보고 VR 콘텐츠 시장에 자신의 미래를 걸었다고 했다. "VR 안에서 아티스트와 팬을 잘 연결해 좋은 경험을 선사하자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카카

오 전라립장 등을 지낸 그는 2015년 이 제법 전 카카오 공동대표 등과 함께 어메이즈VR을 미국에서 창업했다.

지난해 10월 메가박스 단독 개봉한 에스파 VR 콘서트 '링팝: 더 퍼스트', 올 2월 같은 곳에서 상영한 엑소 카이 VR 콘서트 '링팝: 더 브이알콘서트 카이' 등도 어메이즈VR에서 제작했다. 어메이즈VR이 제작한 VR 콘서트 앱은 지난 2월 애플의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출시와 동시에 탑재됐고, 현재까지 비전 프로 뮤직 앱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라 라슨, 티페인 등 미국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VR 콘서트도 만들었다.

-공연장에 설치한 VR 카메라로 영상을 만드는 것과 VR 콘서트는 어떻게

다른가. "콘서트 실황을 VR로 옮긴 것은 부가 콘텐츠에 불과하지만, VR 콘서트는 완전히 다른 콘텐츠다. 가장 큰 차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무대를 설치해 노래마다 바뀌며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없다면 꿈꾸는 모든 무대를 만들 수 있다. 같은 우주 배경이라도 연출자의도에 따라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 수 있다. VR 콘서트 생중계도 가능하다. AI(인공지능)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어 VR 콘서트의 미래 또한 밝다. VR 콘서트 제작 과정의 많은 부분을 AI로 자동화하면서 제작 기간과 비용을 모두 줄였다." **황지영 기자**



이승준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한방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의학사 (NCCA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통이면 준비 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문의처: Ms. Han (703) 939-5223 (가장 가까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은 절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월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금주의주제 생일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8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슈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이런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엔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엔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고객만족! 준비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 집값 - 셀러레포트
-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 지붕, 거라, 인스펙션
-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 터미트 검사
- 홀워런티
- 현재 소유 보험 리부
- 크레딧 리부, 관리 방법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재투자 상담
1031 Exchange Specialist
부동산
장기 투자해서 매매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되지 않

매일 새벽 "황계실 부동산 생생 정보"를 이메일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kakaotalk ID: Gyeshilhwang email: jkim0825@gmail.com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지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 Realt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한달광고유료게재,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메릴랜드 지역

직원 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병원/한방/덴탈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 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폴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엘리컷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픽업바느질 하실 분(파트타임) / 엘리컷시티 410-926-3200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기타

픽업바느질 하실 분(파트타임) / 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류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하실 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각각 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룸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 아름 메트로 근처 싱글룸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룸,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책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8-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책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 매니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염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Community Service Clerk (Church): Do clerical assistance for the outreach ministry. Reach out for Mongolian communities for Mongolian communities to find out needs for caring. Do administrative coordination for the community service, food distribution and homeless ministries. Visit locations within Arlington County and its BLS area. 40hrs/week, Tue - Sun. Associate degree in business or equivalency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Arlington Assembly of God at 4501 North Pershing Drive, Arlington, VA 22203

애난델 시원한 사무실서 파. 풀타임 근무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L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인 승원유통에서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 /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소독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건축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Nick: Mom I'm going to ride over to Mark's house.
 닉: 엄마 저 마크네 집에 다녀올게요.
 Marcy: On your bicycle?
 마사: 자전거로?
 Nick: Yeah.
 닉: 네.
 Marcy: Why don't you wait for the wind to die down.
 마사: 바람이 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지 그래?
 Nick: It is windy today, isn't it?

닉: 오늘 바람이 굉장히 불건 하네요, 그렇죠?
 Marcy: What are you doing at Mark's?
 마사: 마크네서 뭘 하는 건데?
 Nick: We're going to play video games.
 닉: 비디오게임 좀 하려고요.
 Marcy: Well, just sit tight for now. This wind is so strong. It's knocking down trees.
 마사: 그럼, 좀 기다려봐. 바람이 너무 세다. 나무들이 넘어지고 있으니까.
 Nick: All right. I'll give Mark a buzz and tell him I'll

come over later.
 닉: 그럴게요. 마크한테 전화해서 좀 늦게 간다고 할게요.
 Marcy: That's a good idea.
 마사: 그게 좋겠다.

기억할만한 표현

▶ sit tight: 잠자코 기다리다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다
 "I know you're in pain but sit tight. The doctor will be here any minute." (아픈 건 알지만 참고 기다려봐

die down; 잦아들다, 수그러들다

(Nick is talking to his mother Marcy ...)

(닉이 어머니 마사와 얘기한다...)

요. 의사가 금방이라도 올테니.)
 ▶ knock down (someone or something): ~를 넘어뜨리다 무너뜨리다
 "I'm going to knock down this wall to make the bedroom larger." (침실을 넓힐 수 있게 이 벽을 허물 겁니다.)
 ▶ give (one) a buzz: (구어체) 전화하다
 "Give me a buzz when you know which movie you want to see." (무슨 영화 보고 싶든지 결정하면 나한테 전화해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열쇠

(1)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 ~에 나뭇잎은 무성해도/우리들의 마음에 낙엽은 지고/쓸쓸한 거리를 지나노라면/어디선가 부르는 듯 당신 생각뿐(패티김) (3)볼넷(포볼)과 몸에 맞는 볼(데드볼) (5)불경을 외는 일 (7)앉는 자리에 늘 깔아 두는 두툼하게 만든 요. ~ 위에 원앙금침 잣베개를 마련하여 두고 입을 기다린다 (8)허파. 분하고 노여운 마음. 눈이 까뒤집힐 정도로 ~가 치밀었다 (10)사춘기에는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나기 시작하죠 (11)사람에게 길이 들지 않은 야생의 사나운 짐승. 미녀와 ~ (12)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오른쪽으로 90도 틀어 돌아서라는 구령 (14)지나간 날짜가 거의 한 달이 가까이 됨. ~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16)보온을 하거나 열을 차단할 목적으로 쓰는 재료 (18)설사할 때 나오는, 물기가 많은 붉은 똥 (20)바람을 막거나 장식용으로 둘러치죠. 전통 혼례 때도 옆에 세우죠 (21)석재(石材)로 쓸 돌을 떠내는 곳 (22)창자. 속마음. ~이 풀리다 (24)말리면 굴비 (25)가축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

릇 (27)맞거나 부딪쳐 생긴 상처 (28)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

세로열쇠

(1)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 (2)남자의 입 주변이나 턱 또는 뺨에 나죠. ~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 (3)가축에게 주는 먹이 (4)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험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 (6)번덕스럽고 간사하며 피가 많은 사람 (7)음력 15일 밤에 뜨는 둥근달 (9)형제자매 중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 (11)밤에 직장에서 일을 함 (13)배움에 뜻을 두어 그 길로 나아가려는 열의. ~에 불타는 젊은이들 (15)채소를 소금이 나 장에 절여 숙성시킨 식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죠 (16)잎이 울긋불긋 물들죠. 오매, ~ 들 것네/장광에 골 붉은 감잎 날아오아/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오매, ~ 들 것네(김영랑) (17)갑자기 입으로 숨을 터뜨려 내뿜죠 (18)헤엄칠 때 발등으로 물 위를 잇따라 치는 일 (19)불룩하게 나온 배 (20)야구에서, 주자와 타자가 모두 아웃되는 타격 (23)알이 들어 있어 배가 부른 생선 (24)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위로 대대의 어른 (26)무덤 속에서 나온 뼈

스도쿠

		2	5	1				4
	6		9					
	8		7	3				5
	5	1						6
			3		5			
7	2			8				
					8	2	3	
		1	6					
9	3						7	
								2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1	2	5	4	9	8	3	6
4	8	5	6	7	3	9	1	2
9	6	3	2	8	1	7	4	5
5	3	6	1	9	8	4	2	7
8	2	1	2	5	4	3	6	9
7	9	4	3	6	2	1	5	8
1	5	2	9	3	7	6	8	4
3	7	8	4	2	6	5	9	1
6	4	9	6	8	1	5	2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 3자리 EXP. DATE: / / month year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애틀랜타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결경에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Sales Manager:

Direct sales activities:
Bachelor's in Business
Admin, or related req'd,
40hrs/wk: Apply to
MOORIM USA, INC.,
3700 Crestwood Pkwy NW,
Ste 200, Duluth, GA 30096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게재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charcoal cedar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박혁박사(하위트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효유

1-213-210-9720/papaaaa.com

Partial & Denture
플타임
N.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
704.806.3068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러치라 살매
최종상상

Up to 40%
최대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휴제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러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러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 입니다.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